朝鮮日報

今日四面

購讀料(朝、夕刊) 一部金五錢 一個月金壹圓 ... 三個月先金 ... 六個月先金 ... 一個年先金 ...(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拾四字一行壹圓 ... 記事欄內 ... 指定料 ...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金炯元
發行所 京城府 ... 朝鮮日報社

社說

開闢誌의發行停止에對하야

一

開闢雜誌第六十二號(八月號)는 當局者의忌諱에觸한바잇서 發賣禁止를當하는同時에 昨一日附의指令에依하야 發行停止의厄을被하게되엿다 이것은孤獨하고 寂寞한우리言論界에잇서 一大不幸이라아니할수업는바이다 어느社會를勿論하고그社會의文野를 尺度함에言論의如何로써 한다함은 識者들의共認하는바이어니와 우리의言論界를 돌아보건대 不自然또不合理한 許可主義의 桎梏下에 言論의發達이抑壓되는事實은 오히려姑舍勿論하고 檢閱當局者의 偏見 狹量으로써하는 苛酷無比한檢閱로因하야우리의言論이 如何히抑壓 蹂躪되며 言論의任에當한우리가그로말미아마 얼마나 쓰리고또 압흔記憶을머누르게되얏는지다 시되푸리를안드래도 滿天下大衆의익히洞察할바이다!

二

이와가티環境이 險惡하고崎嶇한지라幾個의言論機關이나마存在하는그것을通하야우리의經綸과要求가任意로發表되지못할것은當然의結論이다 그럼으로우리의言論은 最大限度에서文化의啓發 生活의改善 行爲의醇化의本能을發揮치못하고奄奄區區히最少限度의使命을다하야現象에滿足치아니하면안되게되얏는데 여긔에 다시不意의干涉 無理의壓迫이隨時加勢한다함은 진실로痛心과憤慨를禁할수업는바이다

開闢誌가創刊以來 六年의風霜을겪그면서 六十二號를거듭하는동안에 그半數以上이 押收의禍厄을當하게되엿다함은 道聞에經營者및執筆者의苦心과努力이不少한것을알것이다噫!우리의言論은 言論自體의참다운使命을發揮하는그것이되지못하고 오즉그形骸가存在함을嘆치아니할수업는形便이다

三

武斷의武斷政治는 片言隻句에라도言論의自由라면 頭尾를賴하게禁壓하엿거니와 己未運動으로말미아머 鼓舞覺醒된우리는무엇보다도言論의自由를부르지지게된結果 그翌年인一九二〇年에는 日刊新聞三種의發刊을보게되고 各種의雜誌는實로雨後의竹筍과如히 簇生하야一時는자못 隆盛의活氣를呈할것이事實이엇다 그런데極度로抑壓되얏든우리는言論의自由를憧憬하든남어에 거의反動的으로一時的隆運을자랑할만큼되엿스나 經濟的으로持久的準備가無하고또識見 根氣 가함에不足한터이라 不久하야或은二三號에或은創刊號에自滅淘汰되고日刊新聞外지가 幾多의變遷轉覆을보게되는가온대오즉開闢誌는 經濟上에도 許多한難關이잇섯슴에不拘하고 가장根氣잇게孤壘를堅守하야惡戰苦鬪한結果滿身에血痕이淋漓한偉觀을負하게되얏스나不屈突進、不撓邁往의勇氣로써 今日의發展을보게되엿다 唯一한月刊評論雜誌로써그異彩를 發射하게되는同時에 우리의新文化啓發上莫大한貢獻이잇게된것은 누구나否定못할事實이다

四

이러틋 開闢誌가여러方面으로그行步가艱險하고運命이數奇한가온데에서 成長發達되야온것인데 이제不意의禍厄을被하야發行이停止되게된것은 우리의寂寞한言論界에잇서 一層寂寞을늣기게하는바이며 孤獨한우리의 言論機關은 一壘를직혀주든 一戰友의援護로말미아머 더욱深刻한 悲哀를맛보게된다 그러나우리가 늣기는寂寞을 우리가 論하는孤獨을 우리스스로 匡救치못하게되엿스니 이것은부질업는嗟嘆에不過할바이다 아아 吾人은 自己의運命을他力에맛기고잇는現實에 다시한번冷酷한呪詛를 던지지아니할수업다 그러나또어지하야 病을준者에게 藥을求하는矛盾을取치아니치못하게된바에야

五

이번 同誌에發行停止의處分의理由에對하야는 元來當局者의任意로定할바이니 구태여是非를論코자안커니와 同指令의主文에쓰인바와가티 所謂「安寧秩序를妨害하는者로認定함으로써」라하엿스니 安寧秩序를妨害한다는意味에서 發賣禁止의處分이잇섯스면그것으로써安寧秩序妨害云云의疑惧는消滅된바이어늘 거긔에다 다시二重으로發行停止의處分을加함은 苛酷에失함이아인가 하물며朝鮮의新聞紙法에는『許可』라는障壁이잇서 識見 誠意 資力이具備하다하드래도 一片의 許可指令이업시는 片言隻句를 發表하지못하게된 現象에잇서서라 그럼으로 吾人으로써하면 新聞紙上에、安寧秩序를紊亂케할記事를 登載한다면 行政處分以上의司法處分이別有한터인데 二重의行政處分으로써 言論을強壓하는것은 如何한意味로보아도 그本意를疑心치아니할수업다한다 그러면當局者는이點에顧慮함이잇기를附言하야둔다

베탄元帥歸還

(「셀도」三十一日發) 「모로코」로부터歸還한「베탄」元帥는「말세유」에上陸하엿더라

日大使負傷事件 露大使와內密交涉中

(北京一日發) 莫斯科에駐屯한日本田中大使負傷事件(此電報不着)에關하야某地中國大使館員에拘引된事件은日露中國交에影響되는重大事件으로外交部는內密히當地露國大使館과交涉中이더라

內閣親任式擧行 二日午前東宮御所에서

(東京電) 二日午前十一時赤坂東宮御所에서左와如히親任式을擧行하얏더라

內閣總理大臣子爵 加藤高明
內務大臣 若槻禮次郎
外務大臣男爵 幣原喜重郎
大藏大臣 濱口雄幸
陸軍大臣 宇垣一成
海軍大臣 財部彪
文部大臣 岡田良平
遞信大臣 安達謙藏
鐵道大臣 仙石貢
(以上重任)
任農林大臣 正五位勳二等 早速整爾
任商工大臣 正五位勳三等 片岡直溫
任司法大臣 正四位勳二等 江木翼
任內閣書記官長 從四位勳二等 塚本淸治
依願免本官 農林大臣 岡崎邦輔
司法大臣 小川平吉
商工大臣 野田卯太郎

政務官豫想 一兩日中決定

(東京電) 第二次加藤內閣의新政務官은或은一兩日中黨內의大勢에基하야親任될터인데目下豫想되는候補의氏名은左와如하더라

內務政務次官 藤澤幾之輔
同 參與官 鈴木富士彌 (重任)
大藏政務次官 町田忠治
同 參與官 八並武治
三木武吉 (重任)
陸軍政務次官無變動
同 參與官 同
海軍政務次官 武內作平 (重任)
參與官 小池二郎
司法政務次官 本田恒行
參與官 齋藤隆夫
文部參與官 鈴木倉次郎 (重任)
又는 樋口秀雄
又는 中原德太郎
農林政務次官 田中善立
參事官 高田耘平
商工政務次官 棚田軍之佐
參與官 野村嘉六 (重任)
遞信政務次官 頼母木桂吉 (重任)
參與官 山道襄一 (重任)
外務政務次官 望月小太郎
參與官 永井柳太郎 (重任)
鐵道政務次官 無變動
參與官 上同

尚且此外小寺謙吉、森田茂、小西和、中野正剛의呼聲도잇더라

組閣形式은 全然新內閣

(東京電) 加藤首相은大命을拜受하고首相官邸에入하자바로政友三閣僚를除한全閣僚를官邸에招集한後各大臣의辭表는總히受納하고다시自己에게大命降下가잇다는旨을報告하엿는데大命降下의形式이右와如함으로前加藤內閣은全然새로운意味의內閣으로組織되는터이나勿論實質에잇서서는三閣僚以外의閣僚는新內閣의客員으로要請하야親任되것는데改造內閣임은分明하나形式에잇서는全然新內閣이出現할터이더라

莫府日大使館 十日頃移轉

(莫斯科三十日發) 日本大使館은八月十日頃外지에修繕完了하여事務所及宿舍共히移轉할터이오同且同大使館一年間의家賃은四萬八千圓이더라

日、露領事館 開設場所決定

(莫斯科三十日發) 領事館開設問題에對하야交涉의結果日本은『니코라이에푸스크』『어덧사』露國은神戶、橫濱、大阪에開設하기로決定하엿다

東宮樺太行啓 四日橫須賀御發

(東京電) 東宮殿下樺太行啓는政變으로因하야一時延期되엿든바舊히來四日朝橫須賀御發하기로內定되엿는데日程은二日間繰下될뿐이오別로히變更은업더라

床次政本黨總裁談 聯立의不徹底보다는 차라리單獨內閣!

(東京電) 大命이加藤子에게再降下함에對하야政友本黨總裁床次竹二郎氏는感想을말하되政界의安定가조금도鎭定되지아니하고不安의狀態에잇슴은國家를爲하야甚히憂慮되며차라리이狀態대로가게되면單獨內閣이되야歸着할바에歸着하는것이適宜하다吾人과는自然意見을달리하는터이나何時外지든지聯立內閣으로主義政策이흔들려徹底치못한政治가行하느니보다차라리單獨內閣으로徹底하는것이조타吾黨은從來대로野黨으로나어가何等의다를것이업다勿論政友會와는野黨으로同道行을하게되겟스나兩者의政策이全혀一致할는지아니될는지는무어라말할수업다云云

本黨動搖 期待絶望! 憲本合同…政本合同의兩論 重大危機?

(東京電) 政友本黨은加藤內閣總辭職을압두고별안간政友會와提携를策하야한갓政權獲得에狂奔하든바期待는어긔버려가加藤子에게大命이降下되자黨內는猝然動搖하는兆朕이생기여一은憲本合同論에一은政本合同論에分岐되야幹部의處置如何에依하야重大한危機를招來하려하는中이더라

憲政常道 當然한歸結 大命再降下와 箕浦勝人氏談

(東京電) 今回大命이加藤子에게再降下함에至한것은憲政의常道로써當然한歸結이다蓋二三閣僚의反對에依하야內閣이瓦解치아니치못한다하면陰謀에依하

大關門은 次回議會 一大接戰未免 政友某總務談

(東京電) 加藤高明子가大命을拜受한以上稅制問題其他一般政策의諸問題를가지고國民의信任을問할方途에出할意思가잇스리라생각하나果然그러하면我黨도五十一會議에서어데外지던지우리도主義政策의徹底를期치아니하면아니될터인데國民은果然此를如何히보는지大釜來選擧는憲政治가始作된以來의大接戰이될터이오余等은非常히痛快케思한다余等은이미今日이잇슬것을覺悟하고잇섯슴으로今日加藤子에게大命이降下하엿다고別로히놀래지는아니한다차라리當然하고하겟지?五十一議會에서는一般施設에關하야公然히政府에抗爭할것은當然한趨勢오其結果는現內閣不信任을政本二大政黨은同盟으로決議하리라其結果는解散이될것은말할것도업스나此時야말로國民이加藤子及憲政會의政策을彈劾할時機라確信한다吾等은憲政有終의美를擧키爲하야徹力抗戰하겟고本黨도如斯하리라思惟한다云云

多期議會에센 猛烈한衝突 政本合同은濃厚

犬養毅氏談

(神戶電) 大命이加藤子에게再降下하엿다는報를가지고雲仙花壇에休憩中인犬養毅氏를訪問하니氏는左와如히말하더라 所感은무슨特別로히感想이업다政本合同은생각대로되엿겟지마는憲政會의單獨內閣이되엿드래도來議會는相當히混亂되며同議會에서도猛烈한衝突이이러나結局議會의解散이잇슬것은明若觀火하나憲政會는單獨內閣組織에依하야政本協同의敵을造出하야此로因하야兩派合同의可能性은現著히濃厚하엿다云云

園公과內府間 意見서로疎隔

(東京電) 後繼內閣의組織에關하야西園寺公과牧野內府間에意見의間隔이생기여政局의前途에暗暗한바가잇섯는데此는西園寺老公은極히簡單히現下의政局을速히收拾하기는加藤首相外에업다는뜻을入江侍從次長을通하야奉答하엿는데此報에接한牧野內府는從來政變의機會잇는時마다薩派再起의念이懇切하던老公의意見은此에反함을見하고놀래여急遽히親이御殿場에至하야老公의奉答內容을飜覆하도록努力하엿슴으로牧野內府의活躍은重大視되더라

無產政黨 組織具體化 八月大阪에集合

(大阪電) 日本農民組合은去六月二十一日無產政黨組織에關하야全國一千名以上의組合員이잇는勞働組合에提議하야無產政黨의產婆役으로努力하겟다申出하야回答을求하든바三十一日二十八團體로부터加盟의廻答을得하엿슴으로十日午前十時中之島公會堂에各組合에서四名式의代表者가集合하기로되엿는데贊成組合은勞働總同盟、勞働組合評議會、官業勞働組合、大阪市電自助會、船舶司廚同志會、郵司同會支部、中部農民組合等十六團體오反對派는東京印刷工組合、橫濱江信會、神戶海員協會、八幡共同研究會、門司海洋統一會等七團體이며時期尙早說을主張하는團體는海軍聯盟、日本海員組合이오芝浦勞働組合도加入하겟고水平社、政治研究會는加入資格은업스나出席한다더라

入港하자罷業下船 中印汽船의中國船員

(香港一日發) 中印汽船會社汽船『남산』號는『캘커타』로부터香港에入港하자同船乘組中國船員等은直히同盟罷業을하고下船하얏는데汽船會社에서는中國船員代에印度人을雇入하야豫定대로天津에向하게되얏더라

國民黨內部의缺裂 過緩、後進兩派의衝突

(香港一日發) 目下廣東當局者는모다過激派임에對하야廣東商人側안이라軍隊間에서도益益反感을抱하고現에國民黨內部에서도過激派의先鋒을蹈襲할可否에就하야缺裂이生하얏다고香港中國人消息通은말하더라

上海漢口航路 罷業後最初航行

(上海一日發) 日淸汽船上海漢口航路는六月九日以來全部停船中이엿던바最近各方面의罷業部東이崩壞되기始作하얏슴으로同社에서는秘密裡에復活運動에着手하얏는데罷業後의第一船으로祥洋丸을試驗的으로就航하기로하야二日午前十時에漢口에航行케되얏더라

잇지못할廿一個條 憲政單獨內閣組織과 中國政界의恐怖症

(北京二日發) 日本의政變은中國에서도注目되야憲政會單獨內閣成立의結果는中國에不利하리라는杞憂를懷하는中인바此는二十一個條問題로부터加藤子에게對한誤解가아즉根絶치아니하얏슴을因함이더라

米中關係增進討議 米國의對中關係者會議

(紐育一日發) 中國에利害를有한米人은協議한結果來九月十七日『존스홉킨스』大學에會議를開하고米中間의意見情報交換의狀態를改善하야兩國間에文化、政治、通商을增進할方法을討議하기로決定하엿더라

中政府要求와列國 規定이미成立=未決은一案뿐 ◇델리、그라푸紙의論評

(倫敦一日發) 中國政府의要求에對한列國의態度에關하야一日『델리테레그라푸』紙外交記者는大要次와如히報하얏더라

六月廿四日附北京政府로부터의通牒中表明되不平等條約廢棄及治外法權撤廢等의諸要求에對한日、英、米及關係國의回答에關하야는日英米三國政府間에旣히完全한規定이成立되고今後更히商議한後決定을要할것은次의二項目이남어슬뿐이다

(一)對中回答外交文書의形式에依할것인가將亦中國國民에對한公開狀의形式으로외할것인가의問題

(二)中國特別關稅會議及治外法權撤廢問題의審查委員會를開할期日問題

米國自働車王 君府에工場設立

(나우엔一日發) 米國自動車王『포-드』氏는希臘、루마니아波斯、土耳其의諸國에『포-드』型自動車를供給하기爲하야『콘스탄티노풀』에『포-드』工場을設立할計劃을하엿더라

一週一瞥

英罷業解決

一時世界의注目을끌든『웰스』炭坑夫罷業을發端으로 자못全國的大罷業의氣勢를보이고 佛國坑夫組合의援助의決議로 다시國際化의形勢外지促成되든英國의同盟罷業騷動은 其間同海相『브리지만』氏와및首相『볼드윈』氏의斡旋도容易히奏効치못하고炭坑主側의炭坑閉鎖의 威嚇은 놀이어形勢惡化의傾向이잇든바 이제그危機解決의假協定이成立되어全英人은벗서安心함을報한다 客臘『캠벨』事件과및『지노비에프』書翰問題에因하야 勞働黨의敗退保守黨의奇勝을보게되든英帝國의支配階級들은바야흐로赤色忌憚의最中에잇슴으로 勞働者들의急激한直接行動은 政治的및社會的으로매우不利益한處地에잇섯스니 이는마치佛人이그로外一九二一年大罷業과彷彿케하기는매우疑問일것을論한바이다 現下의形勢로는炭坑主側의炭坑閉鎖의 威嚇은돌이어坑夫들의 軟化의原因을짓고『볼』首相의仲裁는畢竟奏效하게된것인모양이다 아즉詳報는업스나 彼等은위선小康狀態에들어갈것이다

佛西와모로코

英佛間에는獨逸과折衝中에잇는相互安全保障問題에關하야 아즉意見의全然一致함을보지못하엿다한다 이는長時日間의懸案으로이제煩瑣한解說을保留하거니와 佛國과西班牙兩國에對한『모로코』의『리프』人의抗爭는依然히衰退됨이업시『압델、크림』을그의指導者로한그들의運動은 자못活潑한바잇는形勢이다 近着한『볼드』電은佛西兩軍의優勢로서『리프』人의推擊이오히려 그氣勢의 强猛함을 說하거니와 그러나이孤立無援한『리프』人의運動은그의最大의强敵인佛國民의사이에 도리어最良한놀무를發見하게되는니 一大『아이로니』이라 할것이다 그는곳資本主義的植民政策의非를斜彈하며『모로크』戰爭의反對運動을일으키는佛國共産黨의存在가그것이다 그들은最近出征하는水陸軍들에對하야赤化運動에熱中함으로 이미二百餘의被拘禁者를내엿다 한다 그리고『카이요』藏相의施用으로危機에瀕한財政을回救코저하는그들의國情에잇서서銀行從業員의罷業騷化의報를듯는것도또한매우異樣의感이잇는者이다

米露形勢一班

安全保障問題로 아즉一致를보지못한 英佛關係는 戰時假務善處問題로서도 아즉多大의距離가 잇다한다 國際的으로비록 親善한關係에 잇다할지라도언제든지반듯이機械的一致를보는것은 아니어니와 上海盟罷事件에 關한英佛의反目도자못注目할일이엇다 그는이에長說할境遇가아니어니와 佛國은少協商列國을 援助하야 그의歐大陸에 對한霸權를維持코저하고一面으로는赤露의 西漸을防遏코저하는바이다 이제波蘭赤露間에는露國守備隊長殺害問題로써重大한紛議中에잇스며 米國에는『콜로라다』州에서發生된暗殺大陰謀의事件으로避暑期의들은閑散한政局에向하야 多少人心을刺戟하는바잇다暗殺의目標가大統領『쿨릿지』氏를비롯하야 石油王『락펠러』、自動車王『포드』、電氣王『에디손』等諸氏에잇섯다하니 자못無政府主義流의過激派의所謂인것을알것이다 더욱히『콜로라다』와가티西南歐洲人의移民을多數收容한南部地方에잇서서는自來이러한秘密結社가자못그類例가적지안흔바이다

中國形勢逆轉

向日偃旗息鼓의狀態에잇슴을說한示威動亂後의中國은 그後香港의英市民들의對中國强硬한決議에依하야적이殺氣를돗거는氣味가잇섯고 지난三十一日午後上海南京路의英商和氣洋行의中國人職工들의盟罷示威에因한英巡査의發砲및職工側의反抗은合計十數人의死傷者를내이어일그逆轉하는形勢가매우險惡한바잇다한다 今期의示威動亂이일마나다시巨大하게될수잇는지는큰疑問이다 그러나英國을筆頭로한外交問題는매우困難한바잇슬것이오그와同時에매우容易치아니한形勢는곳吾人이反覆敍述한奉天派勢力의擴大이다 向者北京來信에잇서葉公綽、盧永祥、楊宇霆諸氏가朱深、曹汝霖諸氏와합께改造內閣의重要한閣員이될것을報하니 아즉그實現을보지아니하엿스나奉天派의勃勃한野心이자못可知할수업는바잇슴을알것이다

改造된日內閣

吾人昨日諸般의形勢를綜合하야加藤氏의憲政單獨內閣의成立이最大한 可能性이잇슴을說하고 만일田中氏의政本合同內閣이組織된다할진대 그는日本政治史上一大惡例가될것을附言하엿섯다 이제加藤氏의憲政單獨內閣의成立을보니 그는자못當然한結果이다 今番內閣의瓦解는共同한失政에因함이라기보담은聯立內閣의共通政策의消失에因함이니 이를黨派別로본다할진대第一黨의組閣에對한政友會의政策의合致로因한協調가 그의消滅로因한退却을意味하는바이오 하물며政友會의協調棄離의態度는 그表面의形式如何를勿論하고要컨대政權爭奪을爲한陰謀的策戰에因함이니 이는그들所謂憲政常道의論이반듯이加藤氏의再組閣을보게함이라 그러나만일政本合同이實現되어徐徐히內閣破壞의敵本的態度에나온다할진대 憲政會는비록非政友各派를聯結할지라도 써多數를制키 어려울것이니 來議會의解散이 자못 豫定의方針이될것이오內閣의運命도한長久함을期할수업는바이라 아즉다시論評함을要한다(八月二日午後一時記)

加藤內閣 第二次 前途實로洋洋 政府側의觀察

(東京電) 第二次加藤內閣成立과同時에次의冬期議會에서政本聯合軍이猛襲을加할것은想像키不難하며其結果解散될것도明瞭하다觀察되다그러나憲政會의觀察하는點으로보면政本提携와如함도決코永久히維持될것이아

鐵筆寫眞

一{投稿歡迎}一

올이나커다보지!

訪歐機奉天通過

(奉天十一日發) 朝日新聞社訪歐初風東風兩機는飛行하야今朝十一時五十分奉天上空을通過하야哈爾賓으로向하얏더라

人事消息

▲梁大輔氏(辯護士)金剛山旅行次二日午前八時入京太平旅館에

八面鋒

○日本에政變이일어나자、熟柿의落來를바라든축이、相當히만헛던貌樣이나、熟柿는畢竟加藤子의口中에들어가고말엇다、아모리하여도、熟柿主義의本집은憲政會、

○水害에진절이친지가엇그제연만、西鮮地方은、다시旱災에울게되엿다한다、눈물의마를날은언제

○南京職工의示威行列에、英人警官이또發砲하엿다、橫暴도이만하면、可謂徹底!

朝鮮日報代理部

朝鮮日報讀者여러분씌 조흔物品을싸게求하실便宜를드리기爲하야또는朝鮮日報廣告主여러분씌廣告의效果를더욱徹底케할機會를드리기爲하야朝鮮日報社는今番에代理部를開設하게되얏습니다

即朝鮮日報代理部는朝鮮日報廣告主와其他內外商品製造業者로부터가장優良한物品을選擇하야가장低廉한價格으로讀者여러분씌酬應하는것이使命이올시다

京城의中心繁華地인南大門通一丁目에三層洋屋을占하야準備工事를督勵하든中七月末日로大概竣成되얏슴으로八月十日부터事務를開始하고漸次로內容의着實을計圖하랴함니다

朝鮮日報代理部는朝鮮產業의發達에微力이나마貢獻코저朝鮮各地特產品의宣傳과販賣에特別히努力하겟슴니다各地方에서特產物品의宣傳과販賣를希望하시면面談이나通信으로至急히相議하야주시기를바람니다될수잇는대로便宜를圖謀하야드리겟슴니다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〇四番地

朝鮮日報代理部

電話光化門三三四 振替京城七九九八

朝鮮日報代理部全景

各種樂器特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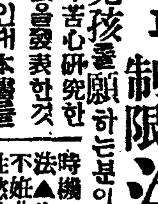
大正琴
一、二本線小型 壹圓九拾錢
三本線黑 貳圓七拾錢
三本線桐 參圓五拾錢
四本大型黑 參圓拾錢
四本大型代 六圓以上
附屬品 ...
送料 ...
注文先金 ...

ハーモニカ特賣
高級用 ハーモニー ... 壹圓 ...
エンホニー ... 四圓八拾錢
コンホニーコンニ號 五圓八拾錢
ホーナー ... 四圓參拾錢
ハモニカ獨習書 五拾錢
送料는各一件에對하야先金은九錢이오代引은貳拾錢要함

官公署御用達 우쓰보야貿易部
京城本町貳ノ七 電話本局貳五貳貳參 振替京城貳貳參

注意 鮮日報에서보시고物品을注文하시는이는廣告에는分明히朝鮮日報에서보앗다고記入하야주시면特別히親切히優待하야드리겟습니다

●性家大學 澤田順次郞先生著 四六判洋裝 密圖入美冊 三四〇頁



避姙과產兒制限法의研究

▲任意대로產兒하는法(及)

보시오!兒孩를願하는분이던지願하지안는분이던지 ◆本書는著者가多年苦心硏究한結果的確한一大秘法을發表한것인데本書를그대로實行하면●男女를勿論하고任意대로自由로產兒할수잇스며또한避姙과產兒制限硏究에對하야極히平易하게具體的으로詳述한것이오其他▲人工姙娠法中의變化及諸注意▲姙娠되는時機와되지안는

時機▲男女兒를自由로生함하는法▲生活難과產兒制限▲避姙의可否▲不姙症及生殖器病▲避姙法▲流產等을圖入하야說明한性欲及月經異常及子宮病自宅治療法을添附함

▼一般家庭의寶典▼必備의特價金一圓廿錢 希望者는前에新聞名記入하시는切手로代金引換으로도라

●代金引換送料二十五錢 ●前金注文送料八錢

東京麻布區富士見町七 正文社 振替東京四九四八四

貴下의愛用하실時計

난一次間議하야주시옵소서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友助堂時計舖 電話光(二〇五)五九 振替一八一

◇수재구제에희생된전일씨장례행렬◇
—이일경성역으로나가는광경—

刑事銃傷犯人 警戒線突破?
시내각처를대수색
崔東植의去處杳然

조간속보=련지동사건(蓮池洞事件)은 그수모홍영선(洪永善)(조간의홍영선은선의오식)까지 톄포하야 일단락을 고한듯하나 이들중의유력한인물로더욱이형사를권총으로써중상시킨최동식(崔東植)을톄포치못한것과경찰당국은 자못꿈에든 쇠웃과가티 몸이달어서시내시외의으슥한곳은물론산과들에까지샅샅치뒤지어그를긔어히잡고자로력하는중이나이일정오까지에는역시로력하는 갑이업시 그의종적조차묘연한중인데 동대문경찰서 에서는 이미범인은 경성의경계선을 돌파하고 디방으로 널리뛰엿슴이나 아닌가하야 방금경성으로부터갓가운양주(楊州) 가평(加平) 등의각경찰에향급히수배를 발송하는중이더라

首領은崔東植?
권총은리광진이가가저온것

다려난 최동식이가 이사건의유력한 수범이라함은 별항보도와 갓거니와 이제경찰에서 최동식의신상에대한 과거를 엇들엇다사한결과 최동식이라함이 그본명(本名)이아니요가명인동시에 그본명은리광진(李光鎭)(三二)인것이확실히판명되엿다는바리광진은과연 조선해방을 목뎍하고 중국동디를 방랑하던 청년으로 얼마전까지 중국간도동디에 잇섯다한즉 간도디방에잇서 홍범선,김진옥,김좌진등과련락하야 아계획을 세우고 드러온것인듯하며 이들이가젓든 권총도필경은리광진이가 가지고온듯 십다더라

平壤不正米商 머리에련추
사긔취재죄로취됴

금번에수재로 인하야 다소간식량의곤핍이 잇슬것을 예측하고 경성을비롯하야 디방 각도회처에서도부정미상(不正米商)들이 뒤를니어 발호하는 모양인데요사이 평양시내에는 경성의수재를긔회로삼아 당국의 눈을속히어가며 무리한폭리를 취하는상인들이 만히잇는까닭에 수일전부터 평양경찰서에서는 그방면에활동을 개시하야 일망타진으로부정미상을 검거하는 중이라는바 위선평양부내하수구리(下水口里)이백오십륙번디 미상주요남(朱曜南)(三一)을비롯하야류뎡(柳町)팔십이번디미상로동진(盧東鎭)(三四)교구뎡(橋口町)십륙번디미상박응규(朴應奎)(三六)두명을 일일오전중에 인치하고취됴를 진행중이라는바 전긔주요남은 지난이십사일 오전중에한되에 사십사전와리를사십칠전에판매한것이 발각되야 즉결처분으로 닷새동안의 구류(拘留)를밧고 로동진박응규 두명은각각백미속에이할(二割)가량의중국미(中國米)를 혼합하야 가지고매일두에사원오십전으로부터사원팔십전의 고가로 판매한것이 발각되야 각각 사긔취재(詐欺取財)죄로취됴를밧는중인데어느것이평양부 백미상의두상에는대철추가나려진모양이라더라(평양)

晉州女普校 獨立問題
부족액이만여원 金璂來氏에交涉

경상남도진주(慶尙南道晉州)녀자공립보통학교(女子公立普通學校) 독립문뎨는구대화하야지난이십구일당디유지금대일데어보통학교당국자의 발긔에 의하야 두학교 학부형회 를열어협의한결과 녀자보통학교만 실현하게되면 래이보통학교의 교실을만층 측하겟고 래일보통학교의 교심은 중축할 필요가업다고하야 진주두학교의 중축을 위하야모집하여둔돈과디방비(地方費)보조금(補助金)일만원과 그런사립봉양학교(鳳陽學校)토디(土地)약 일만오천원합계 삼만원에서진주 래이보통학교 두교실 증축비(增築費)오천원을 감한 잔액이만오천원은 녀자학교 확립긔본금(確立基本金)의반분이 되는바 그부분에 이만오천원은 진주 녀자부(女子部)와 인연깁흔 김긔래(金璂來)씨에게 이에대한 긔부를청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군당국(郡當局)에교섭하여보더니 군당국 에서도 대찬성을하고 민간에서 이만오천원을 금월말일까지 적립하면 반도시이를 실현하도록하겟다고성명한고로시민은김긔래(金璂來)로하고 교섭위원(交涉委員) 강순영(姜順永)씨외삼명을선정하야 삼일오전열시차로 상경케하기로 작정하고 이에대하야시민은몹시긴장한다더라 (진주지국뎐보)

中國人에게 五十圓에딸판父母
팔린소녀는죽어도안간다고

지나간일일 오후일곱시경에 대구서문시장(大邱西門市場)빈터마당에서 나히가 십오륙세가량되어보히는 얍다운 한쳐녀의애끗는울음소래에듯는자와

보는사람 으로하여금동정의 눈물을금치못할만한 일이비극이 이러낫다는바 그사실을 듯건대 그쳐녀는 대구부덕산뎡(大邱府德山町)팔번디 리갑이(李甲伊)의 딸 돌래(乭來)란 쳐녀인바 수삼년전에어리석은 자긔부모가 엇던돈에일의료입으로 전긔돌래를부산(釜山) 에잇는엇던중국인(中國人)에게돈오십원을밧고주기로하얏는데 지난일일에 청년이와서가자고함으로 이사실을 전연모르는 돌래는 죽기로하고가지안켓다고함으로중국인은그의부모의게돈을달라고하야대구경찰서에고소를하얏든바대구서에서는 전긔돌래의 부모를 불너서바든돈을 내여주라 그러고오늘오후 일곱시까지 돈을내여주지 못하면 긔약한대로 아이를내여주라고 하엿다 그러나 전긔갑이는

수일전에 그돈을바다가지고어대서 이러버렷는지 빈한한가뎡에서 돈오십원을 별수가업는처디이라 이것을 엇지할도가업다고하야 중국인에게 말을하엿스나 듯지아니하고 긔어히돈을내든지 아이를주든지 하라고하야 이와가튼비극이 이러난것이라더라(대구)

全一氏葬儀 會葬者五百名
비상한영결식

수해리재민구제(水害罹災救濟)에희생자인 전일(全一)씨의장식은예뎡과가티이일오전열시경에 시내재동(齋洞) 팔십사번디사단데합동회관(四團體合同會館)광장에서 친척기타동지(同志) 오백명이 모히여 처량한주악을비롯하야비절한조가(弔歌)와조사(弔辭)등으로 영결식(永訣式)을마치고 동십일시경에각단뎨로부터온조긔(弔旗)오륙십개를선두로하고 참가하엿든 동지가 친후에호위하야 령구(靈柩)를경성역(京城驛)으로 운반할새 림장한경관이 조긔가운데적색긔(赤色旗)는내여들기를금지함으로 부득이들지못하고 흰긔만들게되얏는데 운구(運柩)행렬은안동네거리(安洞四街)로남대문통(南大門通)을거쳐남대문(崇禮門)을통과하야십이시경에 남대문역에도착하니 령여가남대문을그대로통과하기는그대문세운이래 두번재되는 일이라더라

六氏의護送
고향싸지

전일(全一)씨의령구를남대문역까지 못동지들의호위로 운구하엿다함은 별항보도와 갓거니와 동오후한시사십분발원산행(元山行)차로 그의본향인북청(北靑)을향하야 그의친족이와서령구를십고떠낫다더라

巡査部長被訴
돈사원때문에

선천군남면건산동(宣川郡南面乾山洞)김승채(金昇采)는 지난이십팔일에 선천경찰서(宣川警察署)에재근하는순사부장(巡査部長) 송제래(宋濟來)를거러고소를뎨긔하얏는데내용을들으면전긔김승채가작년十월일에무슨일로선천경찰서사법계(司法係) 에드러갓다나온일이잇는데그후에동사법계에서현금십오원이분실되야전긔순사송제래(宋濟來)는김승채에게혐의를두고김승채를불러다가악형으로써고문을하야김승채는악형에못이기여훔치엿다고자백하엿슴으로그돈을판출하엿는바그후김승채는사실전부를부인하고송제래를걸어도로고소를하얏다가피차간의화해로고소를취하하엿는데고소를취하할당시에판출하엿든돈십오원은 전부반환하기로하고 하엿는데 지금까지사원(四圓)을떼텃든디고 아즉 주지안는다하여 그와가티고소를데긔한것이라더라(선천)

七十老夫婦가 內外싸홈으로慘劇
칠십로인이안해를죽여

평남중화군양정면대내리(平南中和郡楊井面大內里) 삼백팔십오번디농업류비렬(柳碑烈)(七〇)은이십구일오후네시경에당년칠십이세된 자긔안해 리씨(李氏)와말다툼을하다가 전긔 리씨를때려밀업넘어트렷든바그이튼날오전네시경에 리씨는고만 세상을떠나바렷다는데이소문을듯는사람은 칠십로인부부사이에차마으로 인하야 이가튼 참극을연출하게됨은참으로신긔할수업는인간사회라는말을전하더라(평양)

소박마진女子
비관자살미수

정주군 사주면교서리(定州郡四州面校西里)에사는 김성녀(金姓女)(二九)는일즉남편을여의고 단신으로근근히 련명을하면서장래를 생각하야 한푼두푼모은돈이 몃십원이되엿는데 지난정월이십일경에조치원(鳥致院)에서 평양(平壤)출생인 강동혁(姜東赫)(三〇)이란남자를우연히 맛나백년가약을맷고 조치원역전전의옥(全義屋)오십륙번디에서가티살아오던바얼마전에그남편인강동혁은서울로장사하려간후소식이업더니마츰리연(離緣)의편지를 보냇슴으로김성녀는압길이캄캄하야지난이십삼일에강동혁을차저온갓사정을다하여보앗스나 강가는 자긔의피땀으로 모하노흔 몃십원의돈만먹고아조거절함으로 이제 김성녀는세상을 비관하고 그이튼날이십사일에 독약을마시는것을 리웃사람이 발견하고곳시 응급치료를하야 생명에는 관계가업스나아직까지 고통중이라는데 동민들은 강가의 몰인정한배신행동에분개한다더라

郵便所에서금방차진 千四百圓을逢賊
다시부처려고보니쌔엽서젓다

전북도령농무과(全北道廳農務課) 에근무하는좌산기수(佐山技手)는 지난 칠월삼십일날 오전 열한시경에 전주우편국에서 각처에서거두어온 공금(公金) 일천사백여원(一千四百餘圓)을 차저 양복 주머니에 너흔후 그자리에서 다시다른곳으로부치고자 양복주머니에 손을너허돈을차젓스나 돈은벌서 어느자에게 도적마진바되고 빈주머니뿐임으로좌산기수는놀라이요 국원들도깜짝놀라 국내외에는일대소동이일어낫는데이급보를접한전주경찰서(全州警察署)에서는쉬원이현장에급행하야엄밀히도사한후 비상선을 느리고범인데포에로력중이라는데그도적의교묘하고도대담한한데는놀라지안는사람이업다더라(전주)

慶北安東郡에서 不正衡器又發見
『야마주』의詐欺、蠶繭販賣者被害
잠견공동판매에쓴저울이부정하다

부정형긔(不正衡器)문뎨로한참동안 여론이비등하든 경남진주(晉州)정수좌태랑(淸水佐太郞)이잇슨후로 종처럼니야기도 드를수업던 부정형긔 사용자가경북안동(慶北安東)에또잇서데이정수가 낫다 고당디 사회각단데에서는

선후책을 강구중이라는데그내용을 들으면 그문데의주인공은본정통대구(大邱)에다둔야마주(个)조합이라는데사주식회사 안동출장소이라는데 그회사에서는 거금륙년전부터 그부정형긔를 사용하엿다는바 일이발각되기는 당디옥수상뎜(玉水商店)주인 김봉한(金鳳漢)씨가일전에잠견(蠶繭)삼천여관을그회사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대금이만원까지 령수한후 지난이십륙일에 곳치를 계량(計量)하야 매수자에게 넘기는데그저울을 사용하엿든바 김씨가이미계량하여 두엇든것이 축기만하남으로 그저울을 시험하여본결과 이관이상을달면 반드시륙십몸메식축아나고이관이내가되면그대로 뎡확하게 달어지는교묘한저울임으로 얼는보아서는 부정형긔인것을

아지못할 만치되엿슴으로김씨는즉시그회사의권무인대정리삼랑(大井利三郞)에게말하고 이미계량한곳치에 한번다는대륙십몸메식가산(加算)하여달라고하야대정이도하는수업시가산하여 주겟다한후 우룸주룸하다가 뎡한저울에달아사면 리익이업든지 아모리유도업사 이마대금까지반무이상(支拂)한것을 아니산다고한것이 도화선이되야 여론이 비등함으로차차 피해자가 속출한다는데그저울은 지금으로부터 삼년전에안동군농회에서 공동 판매하는곳치를 그회사에서 사가지고가다가 부정형긔로 판명이되엿든것이라는데 일반 생산자의리익을도모하여 준다는 군농회에서엇지그부정형긔를 다시 사용하게두엇는지의문이라하며그회사에서는 매년 이삼만관이라는거대한곳치를

그저울로 달아서사들엿다는데 매양저울이 축이난다고말성이 만헛스나 관허와검인(檢印)을마친저울임으로 시험도하여볼생각을아니하엿든바금번에발각이되엿슴으로 당디 각단데에서는 그대책을강구하기 위하야지난삼십일밤에각신문긔자와경관을 립회하고검사하여본결과매관에는대륙십몸메식축이남으로장차문뎨를철더히해결하기위하야군민대회(郡民大會)를열어토의하기로 하엿다 더라(안동)

술먹다가 傷害致死
불두덩을채고
대장과방광이상하야

황해도신천군룡문면반정리(黃海道信川郡龍門面洋亭里) 류원국(柳源國)의 집에서 지난이십륙일에 사람을때려 죽이엇다는데 그내용을들은즉 룡문면반정리(龍門面洋亭里)사는 리언선(李彦善)(三三)외에수인이 가려

술을마시 든차에문화면용연리(文化面龍淵里)에사는송성오(宋成五)(四〇)는류원국의집을지나다가 술을사자하고 류원국의집으로 드러가서 피차술이취한중에 전긔리언선외 두사람과무슨 감정이 잇섯든지 피차간언쟁끗테 송성오를 무수란타하야 생명이 매우위독하게되엿든바 지난이십팔일에 고만사망하엿슴으로 안뎐검사(安田檢事)는신천경찰서(信川警察署)에재근하는 최부장(崔部長)과 가티공의를대동하고현장에달려가서즉시시톄를 해부(解剖)하여 본결과불두덩을 몹시차이어 방광(膀胱)과대장(大腸)이상하여사망된것으로 판명되엿는데 그때에가해자리언선외두명은즉시포박되여 목하신천경찰서(信川警察署)에서취됴를밧는중이라더라(신천)

巡査가溺死
합천남정강에

합천경찰서 재근순사 김재명군(陜川警察署在勤巡査金在明君)은칠월삼십일 오후세시경에 합천남정강와룡뎡(臥龍、臥牛崖)아래에서헤염치기를 련습하다가 그만빠저죽엇는데 시톄는 당일오후여섯시사십분경에 겨우 건져내여의사의손으로 인공호흡의 수술을하얏스나 결국은 회생치못하얏슴으로 그의시톄는 합천경찰서에서매장할터이라더라 (초계)

水災映寫 巡回禁止
전문학생이 하려든것을
警察이禁止

전문학교(專門學校)학생으로조직된 수해구제하긔순회단(水災救濟夏期巡回團)에서 수재활동사진을가지고 디방 순회를하야어든금품으로써 구제사업에 데공하리라함은 긔보한바 어니와그후로 당국의량해를 어드려고백방으로

노력하엿 스나결국허가를 엇지못함으로 부득이중지하게되엿다더라

革淸講演禁止

경성혁청단강연대(京城革淸團講演隊) 일행은 지난일일수원서 첫강연을하려하다가 수원경찰서의금지로할수업시 연사일행은 평택을향하야 출발하얏다는데 경찰당국에서 금지하는 리유라고하는것을들은즉 연사의신분도 지못하겟고 또는강연당일에 국에말함은 너무나 시간이촉박하다는 조건이라 한다더라 (수원)

中國人을 亂打昏倒
룡산에서
십여세의소년들힐난하다가말린다고폭행

시내룡산경뎡(京町) 십삼번디 중국인 호떡집에서 작일오후 구시경쯤되여 중국인이십여명이 부근에 사는박모(朴某)라는 사람을 란타하야 졸도케한일이발생되여 당직하던 룡산서 소판경부(小坂警部)가 순사이명을 데리고 현장에출장하야그 폭행한 중국인 들을데포하랴고하엿스나이미종적을감추엇슴으로그뒤를쪼차그종적을수색한결과 풍국제분회사창고(豊國製粉會社倉庫) 안에서 전긔폭행한 중국인십여명을 검속하여 방금엄밀한취됴를 한다는데 그자세한내용을 들으면 전긔호떡집에작일저녁여덟시 부근에사는 성명미상한 십이삼세쯤되보히는 아이가 호떡을사가지고갓는데 그호떡이 매우묵은것임으로 다시박구어 달나고 전긔호떡집에 이르럿더니 마츰그곳에 놀너왓던 풍국제분회사에서 로동하는 중국인이 십여명이 달녀들어 금수가튼 행동으로 소년을붓들고 곳치를 아니함으로소년은부서움이과지못하야비명으로구원을부르짓는데마츰그곳을지나가던전긔박모라는사람이이것을듯고굿게다든문을박차고드러가그비행을 힐란하엿더니 그와가티 여러놈들이뎜비여 머리통을 때리여 혼도케한것이라는데 부상한박모는 즉시경룡병원(京龍病院)에 입원치료케하야 생명에는 별로관계가업스리라고 하는데 전긔소년은이름을 타서 어대로인지다라나 그소년의성명과 주소는알수업다고한다더라

鑛夫慘死
두명이석탄
캐다가참사

본적을충남공주군(忠南公州郡)에두고 대동군대보면룡인리(大同郡大寶面龍仁里)백사십일번디에거주하든 삼릉(三菱) 탄광원 권진한(權鎭漢)(三二)은 지난이십팔일 오전아홉시 삼십분경에 자긔동료 심석용(沈錫用)과함께 전긔장소에잇는 삼릉탄광소에드러가 석탄을 파내이다가 별안간에 우흐로부터 텬정이문허저나려서 무참히치어 죽엇다더라(평양)

電車轢傷人
생명이위독

지난일일오전십일시십분경에평양부창뎐리(倉田里)례배당압헤서뎡거장을향하야 나려오는뎐차에 엇던로인한명이 치어서오른편머리에중상을당하야 즉석에뇌진탕으로혼도된것을신창리제세병원에호송하야응급치료하는중인바전긔로인은평북강계군화경면고인동(江界郡化京面古仁洞) 에원적을두고부내관후리(館後里)삼백십팔번디김광언(金光彦)방에와서려관시류숙하고잇는손응윤(孫應潤)(五四)으로서상업차로얼마전에이곳에왓다가그와가티뎐차에중상을당하얏는데생명이 매우위독 하다더라 (평양)

安州大旱
주민중에
벌서리산한사람이만타

평양이북으로 평안북도 일대는 한재가 심하야백곡이 나날이타들어가서 권면상태에 빠진곳이 만흔중 재작년해일로 논과밧헤 업분이 만히쌀려잇는데다가 작년한재에 업분으로 거리다십히의벌판이며안주군(安州郡)의립석(立石)연호(燕湖)신안주(新安州)삼난의벌판이 또한무참한디경에 니르럿다하야 긔보한바어니와 그나마수일전부터 올듯올듯한감우(甘雨)를기다리는것이 이곳주민들의 갈망이던바이미평원군숙천면보민동(肅川面保民洞)과안주군립석면원북(元北)등기라의주민는 비가온다하여도 쌔는존한다니잇서 그리운마음으로 써나버린집수가 벌서수십여호에 달한다하며 기타에넷땅을등지고 쓰라리고 괴막한도회망은친동리가 만타는데 지난삼십일밤과삼십일일부터실낫도양으로 오락가락하는비를 장차의농민권데의생명수가티바라보고잇더라(안주)

平南犯罪
절도가데일
다음이사긔
셋재가상해

평남경찰부 보안과 통계표에의하건대 금년일월로부터 륙월말일까지에 평남도내 각종범죄건수총계는 발생(發生) 오천륙백칠십사건중에 검거(檢擧) 사천륙백삼십건이라는바 그중에데일수위를점령하는것은절도(竊盜)발생이이천사백오십칠건중에검거이천륙백구십사건이고 그다음이 사긔(詐欺)륙백사십사건과 상해(傷害)오백오십일건의발생등이라더라(평양)

無票乘車로 三日間拘留
이십전앗기든 집배인의랑패

함남홍원우편소 집배인(咸南洪原郵便所集配人) 김명훈(金明勳)은 지난이십팔일아츰에동우편소 구내인운포면에 배달하려고 길을떠낫는바 우편물도만코 겸하여 긔후가 매우더워서 도보하기가 어려움으로 한편의 편리라도얻기위하여 역을떠나는 오전 여섯시삼십분발렬차에차표를사지아니하고 경포역(景浦驛)에 내려서 운포로오던길에 동역부의게 발각된바 여러가지로사정한바 종내듯지아니하고 운포경찰관주재소에가서취됴를밧게되엿든바 그이튼날에 홍원경찰서(洪原警察署)에호송되여과료(科料)삼원의 언도를 바덧스나 매일사십여전의 일급으로 근근히 생활하여가는바 실로삼원의 과료금도 어듸곳이업서서 부득이 그대로사흘동안 구류장에서 구류를 당하엿다하는데 일반승차객은 주의할일이라고하더라(홍원)

埼玉縣에落雷
소낙비가오고

지난일일오후세시부터일곱시까지 일본긔옥현(埼玉縣) 각디방에는 큰소낙비가 와서여야뎡(與野町) 부근에는 추부(秩父)방면에네번동안이나 두번 기타삼십륙개처에 벼락이 써러젓는데 여야뎡에는 죽은사람이잇고기타디방에 해가만타더라

양잿물을
기름으로
알고마시어소동

안주성내건인리(安州城內建仁里)사백이십일번디 김인국(金仁國)의장녀 창순(昌順)(六)은 지난삼십일 오후네시경 그릇에담아두엇던양잿물(苛性曹達)을 참기름으로알고먹엇든바 그의모친이 현장에서 발견하고 성내평안의원의 응급치료를 바닷다는데 생명에는 상관업다하며 일반부모들은 이런뎜에 잘주의할것이라더라(안주)

夏期聖經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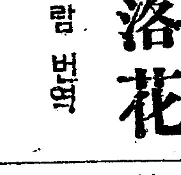
시내동대문교회(東大門敎會)에서는 긴례에의하야 금년에도 팔월일일부터 십오일까지 하긔아동성경학교(夏期兒童聖經學校)를두고성경교수를 실시한다는데 벌서입학자가 백여명에 달하엿다더라

◇集會

◇五月會月例會 소년련합과관 오월회에서는 삼일오후 네시부터시내 종로중앙 긔독청년회관 내에서 월례회를열터임으로 일반회원은만히 참석하여주기를바란다고

종명자

▲한편에서는물이붓는데한편에서는불구경군이잇고한편에서는홍수에생명을빼앗기는데웬업는사람의일이다▲홍수에가족과가구를함쇠일코울며 그날그날의목숨을이어가기가 어려운이째에 한편에서는 환락에취한 도회사람의 해수욕을가느니 소래가들린다 ▲그러나 이런대재변을 목견에본 뜻잇는시민은 좀근심하는 태도를 직히어 마음으로라도 가련한리재민을위로함이 엇덜가요?



落花(락화)

봄바람 번역

一五三

이말로써이미 준길이가 정말 죄인인것은 분명하엿슴으로 로선생도 그러면이제와서 탐색한것이 틀렷단말인가하고 마치안로인의증언을 듯던째와 쪽가튼 실망으로 『야준길아네가정말로 죄인일것가트면아모것도말할것업다 들을것업다들을것업서하고말하라하다가져우그만두엇다 준길이는 분명한소리로 말을이엇다

『지금와서는 재판관에게 모다거짓말만하엿스나 지금은 거짓말을 안켓슴니다 김숙자를물은다고한것도거짓말입니다숙자의사진을 스리가 집어넛다고한것도 거짓말입니다 그의사진은 재판관의 말과가티 숙자가내게로보낸것이올시다 범죄가잇든날 이튼날밤에 숙자의집에 들어간것도 나올시다 범죄가잇든날 밤도 물론들어갓섯슴니다』

이만치말하고 준길이는 숨을몰리엇다 로선생은 바짝바짝조리는마음으로 『범죄가생긴 그날밤에 들어간것이 너라하더라도 죽인것이네가아니지 너는 아숙미인이살해당한것도몰으고 잇지안엇니 그러녓가 숙자숙자하고 부른것아니냐 네가그전날밤에 죽엿다하면 그이튼날밤 부를리가업다』하고 열심으로변호하엿스나 준길이는 도리어도안코 말을하엿다

『그김숙자라하는것은 영국의 녀배우임니다 내가영국에 잇슬때에 연극을구경다니다가 자연친하게 되엿슴니다 그래서그후로는그집으로 놀나가기까지 하게되야 어린애생각으로 사랑을하느니 사랑을밧느니 하다가 나종에는 부부가되자는 약속까지 하엿슴니다、하엿스나그때마츰 토론에한신사가 잇서서 연해숙자를따르며 그도자조 숙자에게로 놀러왓슴니다 그사람은 나보다 나히도만코 또 돈도잇고 수완도잇서서 모다 서방님서방님하엿스며 마츰내는 그의부모로하야곰 숙자를 자긔안해로 어더가기로 승락을하게하엿슴니다 그러나 부모는 승락하얏지만 숙자는 그를실혀하야 죽이어도실타고 안들엇슴니다 그래서부모는 무리하게강제로 복가대는고로 숙자는그고통을견대지못하야 나보고 다리고도망하야달라고하엿슴니다나도그럴생각이나서 마츰내 다리고도망할작뎡을하고잇슨즉 그때에 아버지가오서서 그대로독일로가게되엿슴니다그후로숙자가 엇더케되엿나 혹내뒤를또차오지안을가하고종종마음에걸리는고로 나의잇는바압해다가 숙자와가티여보든그사람기다리는회투를 별려노앗습니다 재판관압헤서는 독일엇던녀자를 생각하는마음으로 그랫다고 하엿스나 실상은권혀 숙자를위해서 그런것임니다 그러나본래 애정이무엇인지 몰으든 어렷슬쌔의 일이엇슴으로 이년삼년 지나는 동안에 나는숙자의일을 권혀닛게되야 화루를니러노흔 밧에도 들어가지 이케되엿슴니다 만일 내가 작년에절단코 박씨집의령자에게도 마음을두지 안엇슬것을 니저버리게되고 다만어린작란에 불과한양으로 생각할뿐인고로 남에게붓그럴것도업고 내마음에 가책을당할것도업서 태연하게약혼을하엿슴니다

각하 내가말하는바는 죽을때의섬히올시다 가면도 허위도업슴니다 그러케나는 약혼을한후에다시엽서 행복으로알고 잇섯슴니다、햇더니어느날 엇던사진관압헤서 뜻밧게 숙자를 보앗슴니다 만일 내가 그에대한 예전 사랑을 정말 사랑으로 생각하고 또그쌔의 약속을정말 약속으로 생각한다하면 나는련자와숙자두사이에 서게되야 무슨화(禍)가생길는지몰으니가반드시몸을피하고 지나갓슬터이지만 다만어렷슬쌔의 동모를맛나는그런마음으로내가먼저몰렷슴니다

각하 나는종종 연극에잇슬쌔의 향수를밧겟슴니다마는 어릴쌔의 회포라는것은 원종는별하여서 언세든지 그후의이야기를듯가도하고 그러고는다시맛나기를약속하고 손을잡고 작별을합니다숙자를맛나서도 다만그런 생각으로 아노생각업시 불러가지고는 엇재서 이나라로 왓느냐 부모는 무고하냐 아마배우노릇도아름이나어졋겟지나도이제는성인(成人)이되여서정말로결혼하게 되엇스니 깃버하여다고 하면서 일장이야기를시작하엿슴니다

謝告

삼가讀者諸氏에게여쭙슴니다 風雨를거듭하든『開闢』은年數로六個年號數로六十二號인今日에 不幸히八月一日로써當局으로부터發賣禁止와 同時發行停止를當하엿슴니다 무어라陳謝할지아직은頭緒를못잡겟슴니다 그러나不遠에다시開闢과讀者諸氏와因緣이繼續될것을미더오며 아직은『新女性』『어린이』其他特히開闢繼刊運動으로써倍前奮鬪하기로自期하오니 讀者諸氏도 더욱더욱愛護해주시옵을바라나이다

乙丑八月二日 京城開闢社

最新改良特製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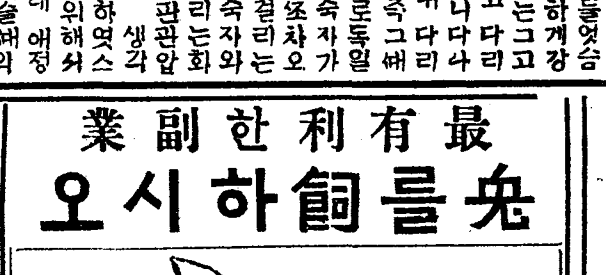
獨逸製白銅片 치마뿔十六形
特價五圓
▲地方注文은代金引換

學生時計

時間의正確함과機械의堅實함을本品의特色을主張하기를保證書로添付提供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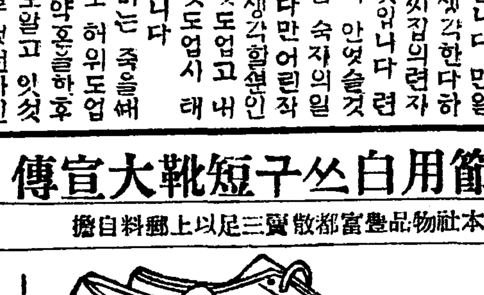
京城鍾路壹丁目七壹番地
信鐘堂時計店
電話光八九六 振替壹壹八九二

最有利한副業
兎를飼하시오



資本은……種兎代와空箱
飼料는……路傍의雜草
飼育은……婦女兒童도能함
用途는……食肉과毛皮
繁殖은……年五十頭以上
販路는……本場서永久買入
利益은……五頭母兎로부터
年益五百圓
說明書要 各地에支分場設
二錢切手 希望者는申込하시오
朝鮮養兎場
開城高麗町一七五番地
振替京城六貳參九番

夏節用白쓰구短靴大宣傳
本社物品은豊富廉價 三足以上郵料自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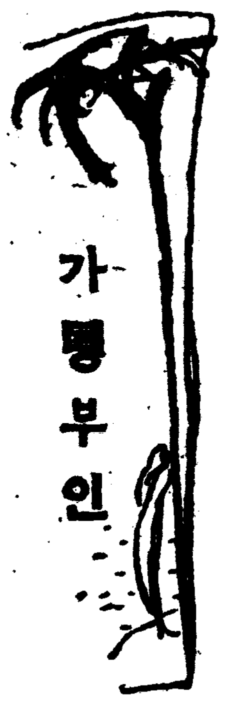


經濟되고流行型으로特製堅牢한洋靴를注文하시라면必히
白쓰구 皮底 短靴特價三圓
同 上編上靴三圓五十錢
同 山陽복수 靑象皮底 短靴特價五圓
同 上編上靴六圓
黑복수短靴五圓五十錢
同上編上靴七圓
白쓰구靑皮底 運動靴一圓五十錢
付屬品一式無代進呈
地方注文代金引換迅速發送
京城鍾路二丁目パゴダ公園前
合名 海昌社洋靴部

京城府安國洞一百三十八番地
眼科專門 一般外科
安國醫院
醫師 趙昌榮
(入院隨意)
電話(光)一二四三

廿七日月曜부터二大連續交換
◎米國싸데ー支社超特作
루스로란드孃猛演
連續冒險活劇 巖窟女王 全十五篇三十一卷
第四回第九、第十篇 四卷上映
◎米國싸데ー支社超特作互篇
루스로란드孃決死的猛演
連續冒險活劇 森林女王大會 全十五篇三十一卷
自第六篇至第十篇 拾卷上映
二回
日活特約 優美館 電光三九五番

임질의靈藥 治淋丸 一圓、一圓八十錢、三圓
梅毒의靈藥 根治丸 一圓、一圓八十錢、三圓
京城南大門內 救世藥館
電本二九六九 振替二二六九



가정부인

여름과아이 (二)

금병의응급치료
무엇보다도무서운역리병
피마자기름을먹이고관장

이번에는 녀름에 아이들이갑작이 돌려는병과 그처료방법을 말슴하겟습니다 녀름에 가장무서운 아이들의병은 역리(疫痢)올시다 이병은 독한독(毒)이

창자가온 데서생겨그것이 대뇌(大腦)와심장을 상하게하는것이니심하야는십이시간이내에 목숨을빼앗기는일까지도잇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분간할수잇는 역리의 증후를말하자면 아이가기운이업서 보이고 항상울기를잘하며 음식도 먹기실혀하고 공연히 하품만자조합니다 그리고 별안간열이삼십구도로사십도까지

올라가며 머리가압흐다고합니다 잇다금 오한이나서몸을떨며 배를알코 설사와 구역을하고 대변은거품 또는점액(粘液)이잇는 뒤를보는것 이올시다 그보다도더 심한때에는갑작이경긔를하던지 혹은혼수(昏睡)상태에빠집니다 이러한여러가지 증후에반드시 나타나는것은열이놉고 맥식메식하며 심아리가 업서지는것인즉 아이들이 녀름에

몸이달코 매이플리여긔신을차릴수 업는듯하거든 진작의사에게 진찰을밧는것이 맛당합니다 그러한때에 응급처치로로하는것이 제일이올시다 관장을 하야 장의하부에잇는것을 모다빼여버리는 동시에 피마자기름을십그람으로 이십그람가량 마시우는것이 조흡니다 그리고머리와심장을

차게하여 줄것이올시다 만약아이가 경긔를하거든 옷을푸르고 편안히뉘여노흔후 의사가오기를 기다릴것 입니다역리의가장큰 원인은 첫재로소화되지안는물건을 흥으로삼키는것이요 둘재는밤에 차게자는까닭이올시다 례를들어 말하자면 두류(豆類)나과실들만히먹은후 에손발을차게하며 배를 잘가리지안코자는것을이름이올시다

그것은모도로인하야일어나는효소(酵素)의작용으로 자연히소화가되는것이올시다 결단코 고루거운성질은잇고

쏫행긔와울성 큰일예구터라 어느과학자가 잘할한솟망리는 비록 일시일지라도마로떠면 사람의운명에 해가된다는것을 경고하엿다 그리고특별히 여러사람압헤서 크게소리를질러 노래하는 성악가에게는 더욱조심하여야 할것이라 하엿는데 『오뻬케트』 월계, 벽향, 수선화, 히야신드,라이락크는가튼것은 목소리를흘리게하기 쉬웁다하다

미균이 몸에가서부패하는것은아닙니다 그중거로는 수박꽉지를소독하야 균을 죽여서두어도속살의녹는것을보면알것입니다(계속)

소화도읍는 수박

정건한음식먹은후에 제일조흔과실 (一)
꼭지를소독하면 오래동안보존된다

서원한수박을먹을결코도지금이 한참이올시다 근년에는 겨울이나봄에도

랭장고(冷藏庫)에 저장하여두엇든 수박을흔히 볼수잇습니다 그리고해마다 수박의소비량(消費量)은 점점더늘어가는듯합니다 우리는거긔대한 상당한지식을너어두는것이필요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서과당(西瓜糖)이 신장병(腎臟病)에효력이잇다고 부르짓든배도 벌서오래전일이올시다 수박은 다만신장병에효력이 잇슬뿐만 아니라우리의 상상하는이상의

생리상 효력이잇습니다 수박은 다른실과들과가티 보통생식을하는것 임으로 『쉐다민』을 일치안코 생리상에 리용할수잇슬뿐만아니라 녀름철에가장 적당한신선한 향긔가나는것은 우리로하여금 더욱식욕을 동하게하는것이올시다 그당분은 조흔자양제(滋養劑)가되여 수척한사람에게 매우유익한 식료이되며 식후에먹으면 훌륭한

소화제 가되는것이올시다 『크림』이나 제빙으로만든『아이스크림』은입에드러가면 곳녹아버리고 마는것 갓지마는 배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이외에 소화가되지안는 것이올시다 녀름에 농후(濃厚)한 료리를먹고 그우에또한 농후한『아이스크림』을 먹는것은 퍽불합리(不合理)한이야기라하겟습니다 신데가

수분을 요구하는도수가제일만흔녀름에 수박보다 더조흔것은업슬줄압니다 수박은 그꼭지에달린 넝쿨을 오래두고 서늘한곳에 저장하야두면 오래보존할수잇스나 더운곳에두든지 또는너무익은것은 제

여름과학

자양만흔보리차

보리차는 자양분이 만흔 음료수입니다 그러고 보리차를 다시맹장고나 우물에다 채워서 식히여먹으면 여름에 갈증나는데에는 가장 조흔것입니다

◇ 그러나 보리차는 보리의 주성분이 용해되여잇는고로 너무오래두면 부패합니다 보리차에 가만진씨게기가잇스면 이것은부패한 징거인즉 그것을먹는것은 매우위태한것입니다

◇ 그런고로 보리차는 쓰린것을바로식히여먹어야합니다 제날만든것은 아모조록 제날에먹어바리는것이 탈이적습니다

멍텅구리 자작자급

(46)

상팔자

(一) 바람을 쏘러되롤어가서
(二) 권하는술에 얼큰히취한판에
(三) 옥배가 먹여주는술잔을밧고
(四) 상팔자라고 머리업틀톤해

童話 개고리왕 (三)

『개고리가 무엇하려!』 그리하야 공주는 그전날에왕궁밧갓샘에서 금공 떠러트린니야기를 하나도 빼지안코말씀히 아버지께고하엿습니다 이러한말을 하는동안에 또문밧게서 문을 두다리고소리가다 시낫습니다

망내공주여
문을여러주오
서늘한샘가에서
굿게한언약을
그대는이젓는가
망내공주여!
문을여러주오

이말을 듯든임금은
『네가 약속을하엿느냐네가한약속이거든 직혀야한다 얼핏문을여러주어라』하엿습니다
공주가 이러나 문을열엇더니 개고리는 뛰어드러와서 어데까지든지 공주의뒤를 따러의자노인곳까지 왓습니다
그리하야 개고리는 딱주저안즈며
『너잇는자리에다 나를올려안치어다고!』하엿습니다
개고리를 의자우에 집어안치엇더니 인제는 다시식탁우으로올나가고십다 하엿습니다 그리하야 공주는식탁우에다 올려안치엇습니다개고리는 나에게네의금접시를 갓가히노아다오 두리가티 먹겟스니……』하엿습니다
왕녀는 식히는 대로 하여주매 개고리는 아조 맛잇게먹고잇섯습니다 그러나 공주는아모것도 목에걸리어 잘넘어가지안하엿습니다
얼마아니되야 개고리는
『배가불렀다 인제는나를네방으로다리고가다오거긔서우리들은 한의자야할터이니……』하엿습니다
공주는 하도긔가막히여 참엇든 울음이터저바렷습니다 이것은그보기시려서 손도 대기실흔개고리가 그와가티 아름다웁고 깨긋한 침대에서 자겟다는것이 너무나두려운까닭이엇습니다

비오는마을

秦雨村

안개 문의 緋緞으로
발을 드린듯 하여라
줄기차게 쏘다지는 빗발
자-욱한 속으로
이便마을에서 보이는
더便마을은
아아 情趣가 그 그윽한
한幅의 그림이여라
그러면 더-곳에서도
이곳을 보면
亦是도 한幅의 그림이리니
그림속에 잠겨잇는
이몸도 그림
가이업시 느러진나무닙가튼
아아 그림의 내마음은
厭懃히도 그대게로만가도다

十一、적은새

『럼네-』라하는 유명한 어른이 잘못한 일도 업는대 낭분욕을먹고 귀양사리를하고잇슬때 목에병이나서 음식을 잘먹지 못할때엿습니다 날마다 이약이드를겸놀러오는 조고만소

녀가아츰에 일즉와서 보니새날이 치운때것만은우유를 데우지도 안코찬것을그냥잡숫고잇섯습니다

목이압흔때찬우유를먹으면해로운줄을아는고도『왜찬것을잡수십니까 불을피우기가실으시면제가피여서 짜뜻하게데워드리겟습니다』

하면서 아궁이에 불을피우려하엿습니다 그러니까 럼네-선생은 깜짝 놀라서 소녀의손목을잡고 정성것말리면서

『내가 찬것을 먹드래도 제발불은피우지말어다고……이아궁이에 뚤린굴둑속에 조고만새가 귀여운새기를치고 길르는중이라다 만약 이 아궁이에 불을때면 연긔가나서 굴둑속에잇는새어미와 새색기가 내워서 못견듸것아나냐』

고 말하섯습이다。그말슴을 드른후로소녀는 족고만 새 기나 나븨를섬지이사랑하고 위하게되엿습니다。

적은 즘생까지 잘 사랑합니다

小說 웃고십건우서라! (三)

周相 作

지금까지모든것을억지로참고 잇던공주는 이때에 참으로청이나서 개고리를 집어힘것벽에다 내부드치며

『이제는 다시그따위말을못하도록하겟다 이 흉칙한 개고리야!』하며꾸지젓다

그랫더니 그개고리는 벽에부드치여 땅에 떠러지면서는개고리가아니오어엽부고상냥해보이는왕자엿습니다

대구명기 봉선이라하면 오입장이처노코 몰으는게제붓그럼 한참드날릴판에는 닷세엿세를 압세노코 지휘를한데도 여간신수로 코ㅅ배인들어더보앗스라 오놈은 동소문밧 엇던내감별장의 사랑노름이요 래일은 또부슨동대감댁 사랑노름이 요하고 이리쒸쉬고 저리쒸쉬는 그름을타서는 이번에는석왕사노리라 요다음에는 동래온천이다 금년단오에는 평양구경가자 맛는추석에는달구경 단풍노리가자하고 안즌자리가 녹을새업시 쏘치는돈 흐르는추파를따라 동에불리고 서에쏠리울제 경성의 화류계는 봉선이의입김코김에 날물듯 하엿다

그도그럴것이 어느산천의 정긔를타고 엇던부모의 긔품을바다인간에 회생하얏는지는 이에한용자는 새따라 얼이풀리는젊은 오입장이의 호탕을 빼앗기에 알맛고 뜨는눈 버리는 입술은그돌 다토아바치는 이바지를정원히 감초아둠에 넉넉할뿐아니라 그의혀쓰테어리운 소리 그의손쓰테내추 가야금은 당대의풍류 남아의흥선과총애를 한

몸에기우리게 하고도 오히려부족할줄한탄하얏다

그러나 이러틋한봉선이도 고생이업는것은 아니엇다 『여북해야 얼무종사못하고 오늘날요모양되엇겟소』하는말은 내신세가업서도하고 남봉상조와서도 하는말이지만 우리봉선이가 열여섯살되든해에 잣단논량 별은것은사려가지고흠어머니와한양성중에다다른것은 지금으로 부터칠년전 초가을진솔치마에 쌔기커고리입을때이엇다

자연세간 나부렁이를싣고 어린것을 테리고온 그어머니는가른고향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을려온련화를 언럭거리로삼고 올려온것이라 련화가 불려주어서 얼마쯤 발천은되엇지만 그해는 그럭저럭 넘어가고 열일곱되든해를 맛게되엇다 그전에도가끔 드나드는 사람들이 업지안엇지만 해빙머리가 지나서 보드나무에 물이 오르고 뒤ㅅ동산의 아위엿든 복송아나무가지쓰테는따리문처녀의 입술가튼 꼿봉오리가매칠벼쯤 되어서부터 봉선이집문간에는 낫서투른새손님이 쏘한아 나타나게되엇섯다 행낭어멈의 뒤ㅅ공론에 듯자면『이댁에도봄 드럿다』한다사실봉선이가 서울온지 만

치가허접지접을하야더펄생각업스나 어린마음에도 밉지는안엇다

고향에 잇슬때에 어미가름은 오입장이를 억지로 쓰려대어 줄때에는 진정으로발버둥지을 치며 야단을할일이업지안헛스나 일년이나 지내오는날에와서는 그와편할일것은 몰론이요 이십남짓한 호협한청년으로쓸쓸이가 그다지 인색지안흔것도 더욱히 미덥직하다더구나 그림가티 주례주례쏘차다니는그소위 병정이라든가하는 십갓가운 녯날오낚장이의 풍떠는말을 드르면 저말인지 그말인지는 모르지만 경상도땅주에서도 몃재안가는 루대거부 최청주씨의 외아들 최명준군이라고한다 그러면 죽은최청주 사람은 얼만한 재산을모아노앗는지 처음부터 봉선의알배나요 알고커하는 배도아니며 의모역시 남의집 열쇠무러미를 세여보지안은 다음에야 엿보도될수업는일이지만 만군 천간에 그의부친이 적고하고게가남의집외아들이란말에는그의모의입이 아니버러질수업섯다 그리하야 최명준의 발길이하로가머다하고 봉선의집으로 향할을따라 알에로는 부억떼이로부

◇天氣豫報 晴一時曇
◇溫度 二日 正午 八二·二
◇比較 一日 最高 八六·四
◇日出前 五時三七 ◇日出 四時一
◇日入後 七時○一 ◇日入 九時六
◇今日은 諾威帝誕辰日

몬부르는가? 애닯진 탄식만가는날과가티 차이겨되엇다

開業

本人이忠北淸州에서蘇民醫院長의任을辭하고七月十日부터左記場所에서開業하얏사오니僉位는照亮하신後愛顧하심을務望함

‖入院隨意‖

仁川府龍里一八一番地

外科 婦人産科 仁濟醫院

院長醫師 尹鎭國 白

文化的葬儀用

靈柩自働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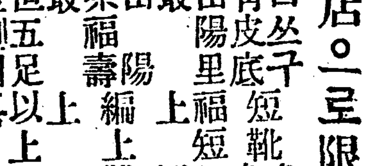
賃間時 京城自働車

京城長谷川町(鮮銀前)

電話本局二七四四番 一○四○番

京城鍾路泰昌靴店으로限합니다

堅實無比 形體優美 輕便하고 價格低廉 하고紳士 用實用品 되는洋靴 를注文하 실셰



白쓰구 短靴 參圓五十錢
靑皮底 山陽里福 短靴五圓
最上 同六圓
山陽 茶福壽編上靴 六圓
最上 同七圓
但五足以上注文定價
壹割引喜
附屬品一式進呈喜
但地方注文代金引換으로送呈

泰昌社洋靴部

京城鍾路貳丁目(パゴダ公園前)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一三

綿糸布商 ㊀ 興一社

電話光化門 三二四三番 一二○九番
振替京城 一四三九○番
電略 ケイセ 又は サフイオン

當七月三十一日부터

◎名 畫◎

◆特別大興行◆

◇유社大作 實寫 國際時報 全一卷
◇유社特作品 快男兒윌리암테쓰몬드氏活劇 北國의暗影 全五卷
◇유社쨱엘超大作 올ー쓰런카ー쓰트 프리시라데잉鑛大作品 戰鬪哀話 二國旗下 全八卷
보라! 女壯夫의大活躍과危機一髮가운데 드러잇는佛國의革命과또한그의愛人을救키爲하야最後의大活躍은果然엇지나展開될것인가!

決死的大連續劇 鷲의爪 全十五編三十卷中 (第六回) 第十一編 第十二編 四卷上演

松竹特約 유社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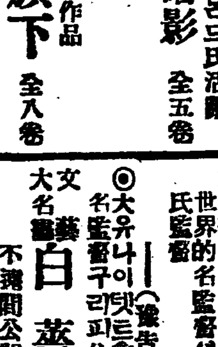
八月一日(土曜)부터
◎米國파라마운트會社作品 喜活劇 地位잇는人 全二卷
◎米國파라마운트會社超特作品 喜活劇 藥劑師 全二卷
◎米國파라마운트會社超特作品 文藝大名畫 아담스、리브 全十卷 世界的名監督세실ㅌ비드미루氏監督
◎大유나이텟드會社超特名作 文藝大名畫 白薔薇 全十卷 名監督구리피쓰氏監督
―(豫告)― 不遠間公開합니다 손곱아期待하시요

京城仁寺洞 朝鮮劇場 電話光二○五番

電話買入

電話月賦販賣並勸業債券買入
鍾路四丁目五十番地宗廟越便
電話商會 主 楊化議
電話光化門一四五○番

● 情交의研究珍書!
●性學大家澤田順次郎先生新著
圖解 男女生殖器 詳解 及性交法의研究 疾病自宅療法



全世界의秘書……지금까지남에게듯고십고배우고십허도듯지못하고배지못하든、男女生殖器의構造及生理의全般、機能、性交法▼避妊▼振의實際研究▼羞恥、生理의全般을알가 로누구든지알기쉽게詳述
한珍書이라또「生殖器病自宅療法」을附하야▼神經衰弱▼感冒減少▼早漏▼梅毒▼淋病▼陰萎▼遺精▼快治療法‖이것을읽지아니하면 여러분은 結婚생활이 불행……
◆菊半▼三五○頁 特價金壹圓廿錢 送料廿五錢 ◆希望者는新聞名을記入하시고請求하시면代金引換으로도送呈함(代金先拂注文送料七錢)
東京麻布富士見町六 振替東京九一四八四 正文社

操心하십시요

特히榮養料에就하야……

胃腸障害
牛疫流行
良品擇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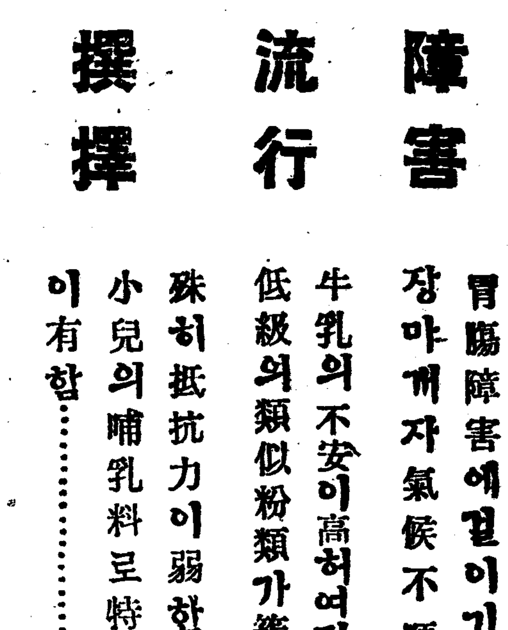
胃腸障害에걸이기쉬우며 장마께자氣候不順한時
牛乳의不安이高하여젓슴으로 低級의類似粉類가簇出하고
殊히抵抗力이弱한可愛한 小兒의哺乳料로特히定評이有함……

一番 多數한小兒를育하고
一番 오래尊貴한經驗이有하고
一番 善히賣되여 確實히

第一理想的인粉末純乳

ラクトーゲン (라구도-겐)

을擇擇하시요



全國有名藥店食料品店에잇소

乾卯食料品株式會社

本店 大阪市東區伏見町二丁目
支店 東京丸ノ內ビルデンング內

四千의罹災民

百度가넘는炎天알에

먹이는업고갈수는안되야 풍전등화의참담한생활!

락동강범람으로인하야침수된경남창원군대산면동면(昌原郡大山面東面)과김해군하계면(金海郡下界面)일대의 홍수는아즉도감수되지아니하야 그곳 촌정농장(村井農場)의소작인사천여명은섬가리 웃둑소슨곳에 피난한채로 요사이백도가 넘는신한데며위에먹지도못하고입지도못한채로날과밤을 보내이고잇다 그디바청년단데와 기타당국에서 난호아준 량식으로는 이십륙일까지마치엇는데 자긔소작인 사천여명 에게동정은그만두고 위로하지도업는 촌정농장(村井農場)의로를인정한해도에대하야는 이미본보에 루보한바어니와 그농장에서 이십칠일부터다섯살이상된리재민(소작인에한하야)에게 매인압헤쌀두홉식을 주기로하얏스며 압흐로를이와전히 싸지기에는 십일이나요한다하며 그후에는 리재민을권부, 수용하야 농장파수리조합의복구공사에 채용하야 저들의생활비를충당케할터이라더라 (특파원긔장발신)

平壤水害救濟會도 警察當局이禁止

경성수해구제회지부가 되지안호면허락못한다

긔보=평양유지들로조직된평양수해구제회(平壤水害救濟會)에서는 각방면으로 구제동정금을모집하기위하야 당국의 양해를엇고자 그동안 루차교섭을거듭하여든바 삼십일일에 이르러는교섭의 결렬되고 결국수해구제사업은 불허가되고말엇다는바 그리유는 금번의수해구제사업을 위하야는 경성에서각공직자(公職者)들로 조직된 조선수해구제회(朝鮮水害救濟會)라는 그러치 안호면 수집된동정금을 그곳에 보내지안코 긔근구제회(饑饉救濟會)가른곳으로보내여서는 아니된다는것이라하며 이에대하야 이달(伊達) 평남경찰부장의 말을듯건데 수해구제사업은 될수 있스면 부분적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는것이 조흘것 갓습니다 그리고 경성수해 구제회로 통일하려는것은 본부(本府)의방침인 까닭에이곳에도 자연히 **전국뎍의** 통일단데가잇슴으로 역시이곳에서도 그런일을한다면 전긔수해 구제회의지부(支部) 형식을가지고 하던지 **구제사업** 은그와련락되지안는경우에는 허가 할수업슬것입니다(평양)

漁場을日人에게

產業技手跋扈로

不公平한줄알며郡守讓步 민원이물끝듯하는중인데 도뎌부로한것을이젓는지

전남려수군삼산면 서도리(全南麗水郡三山面 西島里)에거주하는 일인정상(日人井上)이는 년래로그동리 포구(浦口)에서 어구(漁具)와 장소등 약이만원가치되는 재산을가지고 또그로서 일만원가량의 수입을 매년엇는 멸치(鰮魚)잡이 건착망(巾着網)을가지고서 어업(漁業)을하여오든바 이포구내에는 륙개구역에난호어 경쟁을하는곳 임으로이어업에 한하야는 매년일차식조선총독의 허가를 맛게되엿는데 전긔정상은 매정십삼년도허가를 마큰뒤요지음에 이르러야 허가원을 데출하고 수속중인데그사이에 사정으로인하야 그동리 김문괴 (金文基)란 사람에게 **어구전부** 를매도한바그동시에 정상의명의로 데출한허가도 일후김문괴의명의로 양도(讓渡)가 되기로 계약을처결하엿던바 그외닭에 김씨는의례히정상에게로 허가가 될줄밋고만여원의 거액을드려 일반어구를준비하얏슬뿐더러금년오월초순에는 려수군길뎐수산기수(麗水郡吉田水産技手)가나와 묘사까지하야 갓슴으로 의심업시륙월어획기(漁獲期)부터 어장을 **개설코저** 준비중뜻밧게 최근에 이르러 그째 길뎐기수가 출장나와서 그면에잇는좌등(佐藤)[illegible] 어장과는 아모관계업는 ... 라고 원서를 데다는말이 잇슴으로 김씨뿐아니라 이내용을잘아는삼산면장 원세학(三山面長元世學)씨도이를분개하야 려수군수백흥괴(麗水郡守白興基)씨에게 그불법함을말하는 진정서를 보내엿다는데 이것을바든 **동군수는** 즉시전긔좌뎐기수를불러 이것이 불공평한것이니 좌등에게를 취소하고 김문괴에게 허가함이 조켓다한즉 그 **수산기수** 인어상그만한일은 처단할수잇거늘 좌등에게를 취소하라함은 나를너무불긴히너기는바이니 바리라고 군수의 압에대로 커정하여 군수도 마지못하야 그를승인하야 결국좌등에게 로허가케되고 피고 김문괴와 여러관계자일동은 어장에손도못대여보고 가산만파하여 바렷슴으로 길뎐기수에게대한 면민의원성이 자자하더라(려수)

百餘間大江이되여

殷成하든주막거리

문자그대로의상뎐벽해 인명사상업는것만다행

金浦支局 文와鉉踏查記

김포군통진면두고모래리한골판으로 약오리를거르면 이곳이곳 이번홍수에 가장참혹한 피해을 죽김업시 나타내는 보기에도답지답지한개화리(開花里)라는곳이다 이곳은 경긔간(京金間)삼등도로면변에 잇는가장 번창하다는 주막거리엿것다 오고가는 손님은 대게이곳에서 다리를쉬며배곱흠을 면하든 일반행객에게만흔 위안을주든곳이다 그러나이번홍수에엇더케되엿는가? 물결지마라 가옥은 물론집터까지두러빠저 백여간이나되는 큰내를일우어 오고가는 행객을나루배로 건너주다 그러나다행한일은 인명의사상이업섯다 항이다이곳을 지나는자 누구나 괴막힌탄식을 금할자ㅣ잇스랴? 이

田畓은沙漠으로 엉성한우편소

참상을뮈로두고양동면(陽東面)의참해디인가양리(加陽里)로향하엿다 개화리의 참권을지나 양상한몰만남은 벌판길로 약일리를가면 이곳이곳 가양리(加陽里)다 도로량편의 전답(田畓)은 모래와 돌이 산가티 싸히여논두렁 **밧두렁을** 도모지분간할수업시되여 엇더것이 누구의논인지밧인지 알기조차 어렵게되엿스나 농작물의피해는 말할것도업거니와 장차다시 그전답에다가 곡물을심어볼가함이 큰문데이다 동리어구에이르니 먼저 뵈이는것이 우편소(郵便所)의 참상이다 다행히 건물(建物)은 그대로서잇스나 엉성한 뷔이집뿐이다

人夫五六十名殺到

勞賃引下로

주안염장에서이러난사실 십장을차저인천시지쇄도

삼십일밤 열시반가량은 되여서 인천부금곡리(金谷里)석냥회사압부근에 인부오륙십명이 몰려와서 쇄도하야 대소동을 일으키엇는데 그급보를듯고우각리(牛角里)파출소순사가 **달려가서** 해산을시키려하엿스나 험악한그형세는 도저히제지할수업시 되엿섯다 그래서울분에차인 그인부들은 십장 『황화수』라는사람을죄올고일본인십장구미(久米)라는 사람을 차지려길이 매이도록 시가를다녓다 그내용을듯건데 이번장마에주안(朱安)염전이퇴락하야 수선공사를 시작하엿는데 사방 여섯자와 길히여섯자 파내는데에 임금을 이원사십전으로 정하야 이십구일에는 정한대로임금을주고 삼십일에는 삼십전을감하야 일원십전에 일을하라 함으로 인부들은 **중간에서** 먹거리질을하는것이라하고 금곡리 『황십장』의집으로 쇄도한것이며 따러서 구미의말은 당초에 공사를주기위하야 일원사십전을 주엇스나 하도장에서 일원십전을주고수선하는곳이 잇기째문에 한공사장에서 임금을 차별할수업승으로 삼십전을감한것인데 만일일원십전에 일을할수 업스면 오지아니 하여도조타고 말을함으로 자본벌의속박을밧는 인부들은그대로도라가고말엇다더라 (인천)

巡查걸어告訴

사실대로말하면따리고 시키는대로말하라고해

전남(全南)화순군 외남면(和順郡外南面)사평주재소(沙坪駐在所)순사일동이 고문(拷問)하엿다는사실로 광주(光州) 검사국(檢事局)에 고소를데기한 사실이 잇는데 주재소주임순사우뎐귀오랑(牛田龜五郞)은본래강원도(江原道)에잇다가 삼년 전에 사평주재소로 전근된 후로청질이 조치못한중 욕심이만하 근처사람들에게 나누와 쌀을데 공시키고나무갑은 한집에 이십전쌀갑은 한말에이원식 밧게주지안흐며 자긔의 **사사일을** 시키고품싹도 주지안흠으로 근처동리구장(區長)들이 련서하야 경찰서에진정도하엿스며 혹두셔하엿든바 이것이 동긔로 우뎐순사는자긔의잘못은 째닷지 못하고인민에게감정만 품고청결검사(淸潔檢査)할때에 보아라하고조고마한 두고 하는것이 매일행사임으로 순사는인민을 **대할때에** 사갈가티굴고 인민들은악마가티보고지내든바 지난삼월경에 당디운산리(雲山里)동민이모와사립학교(私立學校)경비를 보조하기위하야 동유(洞有)로잇는 산림(山林) 을 팔기로하고 산림의 명의자인황정옥(黃正玉)황성철(黃性哲)량인을 대하야매금은 삼십원으로 정하엿스니 팔아주든지 좌우간 돈만달라 함으로황씨두 사람은 **백방으로** 주선하다가광주(光州) 사는윤엽(尹曄)에게 오십오원에 팔엇든바 당디의부호민룡욱(閔龍郁) 의조하 되는 영략(泳略)가산림에욕심이낫든지운산리사람으로소작인한신식(韓信湜)부자를식혀자긔에게판것처럼증식을꾸미고황씨두사람을걸어 일토량매 하엿다고고소를데긔하엿든바 주재소에서는 **두사람을** 잡어다노코사실대로 말하면따리고 민씨에게 팔엇다고하면 조케하야 준다함으로아모리캐나 말하고 나와서 윤씨에게 물러달라 한즉거절함으로 또잡히면 마질가하야한달가량을피하여다니든바 지난 칠월오일에다시 잡히여 길가에서 부러상투를 잡고 발길로차며따리고하야 정옥이는 괴절하엿고 성철도 만히마진후 류치장에서 **하로밤을** 자고이튼날에 다시 전과가티 마저서허리와발등이러진바 자긔집에서 치료하다가경천더항으로 광주 중앙의원(中央醫院)에서 치료중 인바 정옥이는삼주일성철이는일주일의진단서를첨부하야고소하엿다는데화순경찰서에서는알고도몰으는데하는지아죽까지아모처치가업다고일반은 비난이 자자하며외남면 사람들은 또무슨일이 나업슬가하야공포중에잇다한다 (광주)

子婦를毒殺未遂

범인인식모는검사국에

뎡주군 신안면안흥동(定州郡新安面安興洞)송재도의모친 리순옥(李□)은칠월십칠일에그며느리리형득(李亨得)(一七)을독살하고지밥에양재물을 석것든것이 발각되야 지난이십사일에 뎡주경찰서에 인치되야 취됴를밧든중지난 이십칠일에 일건서류와 가터검사국으로넘기엇다더라 (뎡주)

慘禍의同胞를爲하야

五團體聯合 救濟音樂

來十一日黃州에서

今般全朝鮮을亘한大水災에對하야黃州靑年會 黃州基督靑年勉勵會 女子基督靑年會 黃州留學生學友會 黃州少年會五個團體聯合으로水害救濟音樂會를朝鮮、東亞、時代長老教會後援下에서來八月十一日에開催한다는데各團體의代表들은準備에紛忙中이라하며樂士들은京鄕에名唱들을請할터이며特히演劇、딴스等도잇슬터이며時間關係를選하는限度에서在來朝鮮音樂도잇슬터이라더라(黃州)

日午後五時에載寧邑明新普通學校上層에集合하야基督敎靑年會의建議로서全鮮水災臨時救濟會를組織키로可決하고二十七日에發起書와綱領의起案通過를了하고即日에實行委員十八名을選任한後委員을五隊로分하야載寧郡一圓에서出員을募集키로되엿는데同會發起團體及委員의分擔區域은如左하다더라

◇發起團體

少年會 學友會 無產靑年會 基督敎靑年會 天主敎靑年會 東亞 每日 朝鮮日報各支分局

◇實行委員

▲第一隊 載寧市內擔當 申聖雨 金麟兼 李壽延 簡秉濟 鄭仁浩 金元浩 申翰俊 李永華 李蘭英

▲第二隊 各官廳及南栗面擔當 白根學·李桂鳳

▲第三隊 花山 銀山 牛頭川 淸水里面擔當 朴灐基 崔錫煥 金壽鳳

▲第四隊 上下聖面擔當 文合榮 金免源

▲第五隊 上下栅面擔當 金世權 康健夏 (載寧)

石岩水救組織

委員을四隊로分

平南平原郡石岩市에서는全鮮의罹災民을爲하야지난二十五日石岩面事務所에서洪鎬杉、李炳得、松本娟太郞諸氏의發起로水害救濟會를組織하고委員을四隊로分하야荷車를가지고各里로다니면서義捐金과物品을募集中이라는데그任員은如左하다더라(石岩)

會長 李基一 評議員 邊得爾 財務 松本娟太郞 書記 康宗協

警察禁止로 會員에게만收捐

慶北安東郡內有志들은今番水災로因한罹災同胞의惨狀을듯고그救濟策을講究하는中去二十五日午後四時에安東靑年會館에서朝鮮饑饉救濟會安東支社、實業團、安東靑年會、平北第二支社、東亞、本報支局代表者가모히여協議한結果一般人士에게寄附를請하기로하엿던바웬일인지警察當局의不許로因하야不得已各團體에서自己團體會員에게同情金을收集하야朝鮮饑饉救濟會에보내기로하엿다는데벌서부터同情金이踏至한다더라(安東)

十一團體蹶起

順天에水救組織

全南順天郡에서는今番大洪水大慘狀을萬一이라도救助하기爲하야去七月二十七日下午三時에順天時代日報支局에서順天靑年會 朝鮮、東亞、時代의各順天支局 順天基督勤勵靑年會、順天老聯合會、順天勞働聯合會、順天無産者同盟會、順天勞働靑年會、順天靑年會、順天留學生大俱樂部、十一個團體가會合하야乙丑水災救濟會를組織할새臨時議長李榮琨氏司會下에諸事項을討議한後左記와如히委員을選定하고午後五時에閉會하얏다더라

◇中央執行委員 吳漢吉 朴炳斗 孫南三 鄭淳悌 徐丙翼 金亮稷 尹行重 吳在省 金聖日 尹處鉉 吳命東 朴永震 許順 姜基盤 趙一松

◇常務執行委員 鄭淳悌 朴永震 尹行重(順天)

消費節約決議

公州婦人會에서

忠南公州婦人會에서는지난달三十一日午後두시부터市內本町佛敎布敎堂內에서臨時總會를開催하고會長洪性德氏司會下에左記諸事項을決議後散會하엿는데當日出席會員은三十八人에達하엿다더라

一、本會員은水害救濟金을各其義捐하야當地의水害救濟會公州聯合會에보낼것

一、右會員은本月부터各其消費를節約하고勤儉貯蓄할것(公州)

五隊로募捐

載寧水救會組織

黃海道載寧邑所在의各團體에서는各其代表者十餘名이去二十四

江華에庭球

中央軍勝利

在京江華學生親睦會와江華中央靑의庭球戰은去三十日午後當地警察署코-트에서開催되엿는데一般觀客은炎天임도不顧하고雲集한바에兩軍은猛戰한結果中央軍이勝利하엿다더라(江華)

豊山에庭球

全郡的으로

咸南豊山郡留學生親睦會에서는敎育會及本報豊山分局의後援으로個人庭球大會를左記와如히開催한다더라

記

一、時日 八月八、九兩日

一、場所 豊山公立普通學校코-트(豊山)

全价川庭球

來九日에

朝鮮日報ㄴ學友會主催로開催되는全价川庭球大會는來九日에北完公立普通學校코트에서열릴터이라더라(价川)

◇寸鐵◇

◇【永興】 紳士의탈을쓰고高利貸金業하는顧興面某는한동안文廟直員運動으로當局者交際에매우紛走하더니요사이와서는新聞購讀者말리기에紛忙하다나成功한다면君의所得은무엇

◇【公州】 大和町朴炳憲氏라는財產家이오官吏인兩班은公州水害救濟會員들에게許可업시남의집에들어왓다고號令을秋霜가티하얏다當式又官僚式

◇【牙山】 牙山富豪白石浦李某의子는自己田畓의水害調査들다닌다는데지나간七月二十二日에는溫陽溫泉에서自働車貸切에妓生을帶同하고天安某料理店에가서一週夜를遊興하얏다罹災同胞調査가아니오自己土地被害나調査이니外自由겟지

南鮮蹴球

金堤에서開催

來十五日부터三日間

全北金堤靑年會의主催와東亞、朝鮮兩支局의後援으로第四回南鮮蹴球大會를左記時日、場所에서開催한다는바規程은如左하다더라

◇大會規程

一、時日은八月十五、十六、十七三日間

一、場所는金堤公普校運動場

一、參加金은一團에二圓(但參加書提出同時拂込하되如何한理由를不拘하고返還은不得함)

一、申込期日은八月十二日外지

一、申込場所는金堤靑年會館內

一、賞品은最優勝『컵』에保優勝旗와銀메달을授與함

一、各團代表會는八月十四日午後九時부터本會館內에서

一、選手는一團에十一人後補二人

一、競技는『綳아式』으로암

一、競技順序는抽籤으로서決定하되各團體代表會에서此를行함(以下畧)(金堤)

夏期와運動

◇六團體聯合活動

全南求禮郡에잇는求禮靑年會와學友會求禮基督靑年會華嚴寺佛敎靑年會求禮農民聯合會相助團六個團體代表가去月二十七日에本報支局에會合하야今番未曾有의大水災로因한慘絕慘絕한罹災同胞를萬分之一이라도救濟코저水害救濟會를組織하기로發議하얏다는데起草委員은李丙歡金正鉉鄭泰直三氏로選定하고더욱오는七月求禮市日을機會로하야水害救濟講演會를開催하고同情金募集에積極的으로活動할터이라더라(求禮)

今番의罹災同胞를救濟하기爲하야來月五日午後八時부터求禮靑年會館內에서講演會를開催할터이라는데地方人士는多數參席하기를바란다더라(求禮)

◇平原罹災救金

今月十八日의水害에京城方面의罹災民을救코저江原道平昌郡大和面和里에서는只今義捐金을募集하는中인데爲先드러온이의氏名은如左하다더라

三圓 金敬用 崔榮奎 鄭萬權 朴淳享二圓 千宮成 咸性善 朴定浩 馬演圭 金澈卿一圓 李允楨 李鍋吉 孫義植 林東浩 金長學五十錢 朴注鎣 張性浩四十錢 朴仁德 二十錢 金基榮 李元三 宋順七 徐聖道 金鳳

◇楊州市民義捐

楊州郡廣乾面內有志諸氏는그郡內의水害災民에게米十石과現金二十圓을보내엿다더라(楊州)

◇宜寧水救

慶南宜寧一帶의水難罹災民에對하야左記人士로부터義捐이잇섯다더라

李祜植氏一般災民에金二百圓 과滿洲粟三十俵及族戚에金二百圓滿洲粟十俵李慶熙氏(婦人)金百圓 孫洪駿氏金三十圓(宜寧)

◇牙山水救

本報牙山支局에서全鮮罹災同胞를救濟키爲하야水害救濟會를組織하야地方有志諸氏로부터不少한義捐이有하엿는데同社會部에서는이受納된金額을本社救護班에게委託하야罹災同胞에게分配할豫定이며出資氏名金額은如左하며今日外지의分은如左하다더라

蘇金東五圓崔益秀五圓仁州靑年實業團十圓 金齊鉉一圓姜台永一圓 曹龍潔一圓李壽永五十錢 (牙山)

◇向坂氏牟麥分給

大邱富豪日人向坂庄吉氏는今般水災에高靈郡開津面에住居하는各罹災小作人에對하야每戶最低三斗最高八斗式牟麥數十斗를分給하야同情하기爲하야同會幹部 趙東律 尹하얏다더라(高靈)

◇笠場靑年活動

天安郡笠場靑年會에서는今般全鮮各處에서이러난水災民을同情하기爲하야同會幹部趙東律尹日榮兩氏의活動으로左記와가티同情金이收合되엿승으로即時本社에付送依頼하엿다더라

二十圓 襲明善 十圓 崔宇植 三圓 金寅奎 二圓 笠場靑年會 徐相根 趙貴用 吉順吾 梁山奕 洪鍾祐 王晩三一圓 尹一榮 趙東律 李成玉 崔正淳 黃周鳳 朴潤秉 吉鳳瑞 諸氏 五十錢 金在京 金炳烈(天安)

◇水救講演開催

全北高敞郡茂長留學生會에서는

第三回全南少年庭球大會

時日 八月十五、六兩日間

場所 務安靑年會運動場

申請期日 八月十四日

申請場所 務安少年團

參加資格 滿二十歲以下

參加組數 三組一團

主催 務安少年團

後援 朝鮮日報務安支局 務安靑年會

第二回西朝鮮庭球大會

時日 八月十六、十七兩日間(雨天順延)

場所 黃州公立普通學校코-트

申請期日 八月十五日外지

申請場所 黃州留學生學友會

參加金 一團三圓

抽籤期日 八月十六日午前八時半

賞品 優勝旗外旅費二十圓

主催 黃州留學生學友會

後援 東亞日報黃州支局 朝鮮日報黃州支局

◇陸上競技大會◇

時日 八月九日上午九時

場所 水原靑年會運動場

主催 水原學生親睦會

後援 東亞、朝鮮兩支局 水原靑年會

◇咸從庭球大會◇

時日 八月十五、十六兩日間

場所 咸從運動俱樂部(코ー트)

申請期日 八月十四日外지

參加金 一團(四組)三圓

主催 咸從運動俱樂部

後援 朝鮮日報江西支局

祝朝鮮日報長津支局設置

長津郡廳職員一同

長津公立普通學校 三好宗秋 朴昌華 金麒淳 金貞淑 張棟源 趙載元

長津邑 長津少年會 會員一同

上南面事務所 面長 趙秉元 會計員 李鳳煜 金記準 書記 金智賢 宋智賢 金贊國

長津郡 新南面事務所 職員一同

長津郡上南面 私立上南學校 職員一同

長津郡 郡內面事務所 面長 朴昌遠 書記 趙秉鉄 金祥有 梁淵植 金大有

長津邑 司法代書人 李時冕(咸興地方法院所屬)

長津邑 司法代書人 金弘洙(咸興地方法院所屬)

長津邑 中山良平

長津郡 中南面事務所 職員一同

長津三省醫院 李培式

長津郡中南面 私立中東學校 職員一同

長津邑面事務所 面長 張太斗 書記 尹千世 林麒南 (垣勳鈜)

祝朝鮮日報 抱川支局設置

抱川郡守 洪淳頊

抱川郡郡內面 佐儀里二六六 男爵 朴叙陽

抱川郡廳財務主任 李圭漢

抱川郡廳庶務主任 伊地知英三

抱川郡郡邑里 金鼎錫

抱川郡廳 尹益鎭 / 洪一灼 / 原口盛之助 / 崔光一 / 李德俊 / 鄭秀弘 / 朴鍾部 / 趙文卿 / 李元鎬

京畿道抱川郡廳 徐丙懿

抱川郡廳 李超元

抱川警察署 署員一同

抱川金融組合 職員一同

抱川郡郡內面 事務所職員一同

抱川自働車部主 金基苑

抱川淸和醫院長 閔泳珍

抱川郡新北面新坪里一二一 洪性直

抱川郡永中面金珠里三五四 朴鍾皐

抱川郡永中面金珠里八九五 李邑應

抱川郡永中面金珠里八九五 雜貨商 金炳浩

抱川郡郡內面下城北里 楊慶鎭

抱川郡郡內面鳴山里 藥種商 李晟鎬

抱川郡郡內面左儀里二八二 李章鎬

祝朝鮮日報海州支局發展

抱川公立普通學校長 松原健治

兪寅植

抱川公立普通學校訓導 尹興淳

抱川郡內面新邑里 司法代書人 柳根植

抱川郡西面新邑里四〇番地 司法代書人 趙利錫

抱川郡郡內面邑里 司法代書人 金洛振

抱川郡蘇屹面長 李慶鉦

海州南本町三七二 海州南川間 海南自動車部 電話 番

黃海道海州南本町 海州土城線延白自動車 海州支部 電話二〇一番

朝鮮黃海道海州 織居自動車部 黃海本部 電話一三三番 振替京城一二七一五番

金堤郡山面週口里 洋服製造 和洋雜貨 三盛商會 主 安通吉

海州 沙里院 載寧 新院 青石頭 翠野 康翎 瓮津 竹川 長淵 海西自動車部 海州北本町 電話一六番

朝鮮海州邑 普恩堂書店 電話一二六番 振替京城一二三二番

海州南本町 紬緞布木 諸雜貨商 金德壽 電話二百六十二番

海州北本町 辯護士 金永烈

海州北本町 載寧・信川・苔灘・龍塘・青丹 海龍自動車部

上町 海庭球俱樂部 劉琮鉉

海州東榮町二四五 便利靴、芙蓉靴、庭球靴 都賣散賣 海元靴製造所 主 金壯元

祝朝鮮日報神戶支局發展

大阪市港區富島町七番地 尼崎汽船 荷客取扱 海陸物產 委托販賣 大阪濟州島間定期使用船君代丸每月一日、十六日大阪川口出帆其他南鮮各港行荷客取扱 三共商會 主 金 電話西一四四四番 兼 大數

大阪市東區牛入町七〇七 韓千壽

大阪玉造警察署 小西幾次郎

大阪市東區玉造町四二 金彥士

大阪市東區舟橋町 金鼎玉

大阪市南區上本町 金達龍

大阪市此花區吉野町 金益俊

大阪市東成區猪飼野 額緣入書 漢藥各種 靈神丸等 商康虹

神戶市海岸通六丁目一八 柳甲出

祝朝鮮日報 江界支局發展

慈城郡梨呼面 代書人 趙承珍

慈城郡三豊面事務所 面長 李昌元

慈城郡三興面照牙洞三八六 代書業 金浚三

慈城郡三興面西海洞 醫生 白宗一

慈城郡慈下面法洞七四番地 醫生 李秉注

慈城郡中江鎭 洪在洙

慈城郡閭延面中江鎭 金鼎錫

平北慈城郡中江鎭 朝鮮自轉車部 主任 申鎭植

平北厚昌郡東興面古邑洞 崔基皪

平北厚昌郡邑內洞 蔡鳳梧